

연구논문

金泰熙(1877~1936)의 민족운동 연구

송선희*

-
- I. 머리말
 - II. 민족운동의 배경
 - III. 한말의 국권회복운동
 - IV.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
 - V. 맺음말
-

【국문초록】

김태희의 민족운동은 1903년 청남학교 설립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청남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민족교육을 하였고, 청신여학교에서도 여학생을 교육하였다. 1909년에는 대동청년단에 가입하여 교육운동과 독립운동자금 지원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19년에는 3·1만세운동에도 참여하였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통제가 조직되자, 충청북도 독판부 참사로 활동하며, 군자금을 보냈다. 또한 그는 대한국민총회가 조직되자 충북대표로 평의원에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1920년에는 청주청년회 활동을 하였고, 같은 시기 교회에서도 면려회를 조직하여 사회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다 일제의 탄압이 시작되었다. 일제는 1925년에

* 충북대학교 사학과 석사졸업

충북도내 무자격 교원을 도태시킨다는 명분으로 그를 청남학교에서 떠나게 만들었다. 또한 그가 청주청년회를 이끌 당시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으로 이념 대립이 불거질 때, 일제는 ‘망선루 기부금 횡령사건’을 조작하여 그의 청년회 활동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1927년 신간회가 조직되자, 그는 신간회 청주지회 활동을 다시 주도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은 지속되었다. 신간회 청주지회에서 김태희가 강연을 하자, 치안법 방해로 검속되기도 하였다. 아쉽게도 신간회는 1931년에 이념을 벽을 넘지 못한 채 자체 해소되어 그의 활동도 사라졌다. 게다가 그의 교회활동도 일제의 정교분리정책이라는 명분아래 교회에서 종교적인 행사만 하도록 강요당하였고, 신사참배까지 수용하도록 강요받자, 그는 교회활동도 그만두고 청주를 떠나 신탄진으로 갔다. 그는 그곳에 가서도 야학을 운영하다 60세의 나이로 운명하였다. 김태희는 학생들에게 민족교육을 하는 교육가였고, 청년들과 시민들을 계몽시켜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계몽운동가였고,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한 독립운동가였다.

김태희의 민족운동의 의의는 첫째, 근대 교육에 앞장섰고, 둘째, 청주의 근대화에 앞장섰고, 셋째, 항일운동에 앞장섰고, 넷째,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냈다. 또한 민족운동에도 한계점은 있다. 교회와 연계한 민족운동을 펼치다 보니 국내 활동에 국한되었고, 다양한 투쟁을 펼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또한 특정한 세력과 사상에 치우친 나머지 광범한 사회계층과의 연대가 이뤄지지 못한 점도 한계였다. 그러나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김태희는 한말부터 1920년대까지 청주의 근대를 이끌며, 특히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을 주도한 선각적 인물로 평가하여 마땅하다.

주제어 : 김태희, 민족운동, 청남학교, 대동청년단, 청주청년회, 먼려회, 신간회

I. 머리말

一石 金泰熙(1877~1936)는 근대 청주의 여명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된다. 근대사립학교인 청남학교를 설립하였고, 대동청년단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1919년에 3·1운동에도 참여하였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통제가 조직되자 충청북도 독판부 참사로 활동하였으며, 大韓國民總會에서 평의원으로도 활동하였다. 또한 그는 청주청년회가 조직되자 회장으로 활동하며, 강연회 및 망선루 보전운동 등 사회 계몽운동에 앞장섰고, 신간회 청주지회가 조직되자 회장으로 청주지회를 이끄는 등 근대 청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는 지역사회에서조차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기록이 불비한데다 연구의 주안이 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태희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순동의 연구가 유일하다. 그는 일제강점기 청남학교의 민족교육운동을 검토하였다.¹⁾ 그는 이 연구에서 청남학교의 민족교육운동과 최창남의 생애와 민족운동을 서술하였다. 김태희의 활동은 청남학교의 설립 부분에서 다루어졌고, 사라질 위기에 있던 망선루가 청주읍교회로 이전되어 교육에 활용된 내용과 청남학교에서 민족교육을 하였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또한 望仙樓 관련 연구에서는 망선루의 약사와 상량문을 해석하였고, 관련된 인물들을 고찰하면서 김태희의 활동을 부분적으로 서술하였다.²⁾ 청년회 연구에서는 청년회의 용어 설명과 청년회 성립의 사회적 배경을 서술하였고, 청년회의 취지와 기독교와의 관계, 조직과 활동, 추이과정과 의의를 밝혔다.³⁾

1) 全淳東·崔東峻, 1999, 「日帝期 淸州地方의 民族教育運動-淸南學校를 중심으로」, 『중원문화연구』 2·3, 중원문화연구소, 91~134쪽.

2) 全淳東, 2000, 「望仙樓 上梁文에 대한 一考」, 『중원문화연구』 4-1, 중원문화연구소.

3) 전순동, 2004, 「일제강점기의 청주청년회의 성립과 그 배경」, 『인문학지』 28,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전순동, 2004, 「일제강점기 청주청년회의

현재까지 김태희가 남긴 글은 망선루의 상량에서 나온 「望仙樓의 移建 原因과 略史文」이라는 글과 집안 형님에게 쓴 편지 한 장이 전부인데, 그나마 앞장은 소실되었고, 뒷장만 남아 있다. 다행히 이 연구를 진행하며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사해 둔 토지대장(1912)을 통해 김태희의 당시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한 것은 큰 소득이었다. 그가 민족운동을 할 때 대동청년단과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냈고, 망선루 보존운동 할 때도 입찰금을 내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그의 토지 매매현황은 그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김태희의 활동을 보도한 단편적인 신문기사가 산견되며, 이를 통해 그의 활동의 편린을 추적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북장로교의 밀러 선교사가 청주사역을 위해 1900년부터 청주에 내려와 전도하는 과정에서 김태희와 몇몇 청년들을 전도한바, 그와 관련된 자료는 청남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됐다.

본고는 이러한 자료를 중심으로, 김태희의 민족운동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은 5장으로 구성하였다. II장에서는 김태희의 생애를 알아보고, 민족운동을 할 수 있었던 사상과 경제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III장은 한말의 민족운동을 논의하는 부분으로 1절에서는 김태희가 설립한 청남학교와 청신여학교의 운영방향과 교육을 통해 그가 민족 교육가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2절에서는 1909년에 조직되어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에게 발각되지 않았던 대동청년단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IV장은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3·1운동 때의 그의 활동을 살펴보고, 3·1운동 이후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통제와 대한국민회에 참여한 사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청년회 활동으로 지역에서의 청주청년회 활동과 교회에서의 면려회 활동을 살펴보면서 그가 추진했던 활동을 통해 그가 민족 주의자로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3절은 그가 신간회 청주지회에서 추진한 활동을 살펴보고, 그의 항일의식을

활동과 그 의의」, 『인문학지』 29,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알아보고자 한다.

본고는 청주의 근대를 열어간 민족운동가 김태희의 활동을 논의함으로써 청주 지역사회의 근대상을 추적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자료의 결핍으로 논의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고, 추론을 전개한 부분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하여는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II. 민족운동의 배경

1. 생애

김태희는 1877년 10월 18일 청주목 탑동에서 아버지 金東賢과 어머니 全州 李氏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仁煥이고, 泰熙는 字이며, 號는 一石이다.

본관은 경주이며, 중시조는 自粹로 桑村公派의 시조다. 김태희는 중시조로부터 20세손으로 교위공파의 후손이다. 교위공파에서 관직에 나아간 이는 중시조로부터 6세손 漢이 參奉이었고, 7세손 九成은 生員이었다. 8세손 弘建은 萬戶이었으며, 9세손 士啓가 通政大夫로 禦侮將軍에 올랐다. 10세손 彦孫도 通政大夫로 折衝將軍까지 올랐다. 11세손 權璟은 奉事였으며, 12세손 龍逸은 가선대부로 中樞院副使를 역임하였고, 청주에 살기 시작하였다. 14세손인 金從柱는 무신난(1728년) 때 공을 세워 揚武原從 공신록에 올랐고, 개신동과 모충동 땅을 하사받았으며, 折衝將軍을 제수받았다. 그 이후로 교위공파 후손으로 관직에 오른 이가 없다. 18세손 원제는 김태희의 조부로 청주 韓씨(부친이 大烈)와 결혼하여 東賢과 東植, 東翼을 낳았지만 동식은 자식이 없이 죽었고, 첫째 아들 동현이 대를 이었다. 19세손 동현이 바로 김태희의 부친으로 전주 李氏(부친은 命洙)와 결혼하여 외동아들인 仁煥(김태희)으로 대를 이었으며 모든 재산이 인환에게 상속되었다. 16세손 치희부터 20세손 김태희까지 청주시 미원면 운암리에 안장되었고, 그 이전은 보은 증봉산 선산에 안장되어 있다.

김태희는 沃川 陸氏(1874~1913)와 결혼하였는데 그에 대한 호적은 찾을 수 없고, 슬하에 基澤·基榮 두 아들을 두었지만, 모두 둘째 부인인 청주 곽씨의 호적에 올랐다. 게다가 육씨가 40세인 1913년에 일찍 사망한 것으로 보아 건강이 좋지 못해, 김태희가 둘째 부인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청주 곽씨(1890~1967)와 1905년에 혼인하여, 육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9년 동안 다 함께 살았다. 청주 곽씨와의 사이에 아들 基煥·基赫·基鉉, 딸 基玉·基璫을 두었는데, 곽씨는 육씨가 죽자 육씨의 자식 모두를 거두어 양육하였고, 육씨의 제사까지도 지냈다고 한다.

김태희의 초년 성장기 기록은 없다. 다만 어렸을 때 한학을 배웠다는 가족들의 증언만 있다. 김태희는 여느 양반가 자제처럼 일찍이 유학을 공부하고 과거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1894년 그의 나이 18세에 갑오개혁으로 과거제가 폐지되자 신학문을 접하였다. 이후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전하는 그의 외모는 체격이 작지만 눈빛은 강렬하여 마주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성품은 소탈하고 외모를 꾸미거나 격식을 갖추는 등 헛된 말이나 농담이 별로 없고 항상 근엄하였다고 한다.⁴⁾

둘째 시기는 김태희가 민족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활동기이다. 1903년 27세 때, 그는 廣南學校를 설립하였다. 1907년에는 『대한매일신보』, 청주지사를 운영하였고⁵⁾, 1908년에는 畿湖興學會의 회원이 되기도 하였다.⁶⁾ 1909년에 그는 애국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결사 단체인 대동청년단에 가입하여 지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같은 해 그는 청주 기독교청년회 초대 회장으로 피선되어 활동하였다.⁷⁾

김태희는 1919년 청주에서 3·1 만세운동에도 참여하였으며,⁸⁾ 3·1운

4) 李昌秀, 1998, 『回想錄』, 계명사, 242쪽.

5)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9일자.

6) 『기호총학회월보』 제1호, 1908년 8월 25일자.

7) 전순동, 2002, 「독립운동과 일석 김태희」, 『기독교와 충북근대교육』, 동해출판사, 336~339쪽.

동 이후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고 국내와 교통연락방법으로 연통계가 조직되자 충청북도 독판부 참사가 되어 활동하였다.⁹⁾ 9월 25일에 조직된 大韓國民會 忠北都會에서 그는 회장으로 선출되었고¹⁰⁾, 전국 각 도회 대표 24명(강원도 제외)이 10월 2일에 평양에서 모여 大韓國民總會를 조직하였을 때는 김태희는 그곳에서 평의원으로 선출되어¹¹⁾ 활동하였다. 그는 교회에서도 1919년 면려회를 조직해¹²⁾ 교인들 대상으로 사회 계몽운동도 전개하였다.

1920년 淸州青年會가 조직되자, 김태희는 부회장에 선출되어 단체를 이끌어 갔고,¹³⁾ 1921년에는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¹⁴⁾ 1921년에는 김태희를 포함한 청주유지 30여 인이 忠北教育進展期成會를 조직하여 교육기관확장을 위해 활동을 하였다.¹⁵⁾ 1923년에는 교회 청년들과 청남학교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부인들을 대상으로 淸新夜學을 개설하여 한글·성경·산술·일본어 교육으로 교육계몽운동을 하였다.¹⁶⁾ 1924년 4월 2일에는 朝鮮小作人相助會 충북총지회 설립총회가 열렸는데, 그는 이곳에서 이사로 피선되었고,¹⁷⁾ 6월 1일에 설립된 淸州勞動組合에서는 고문으로 선출되었다.¹⁸⁾

1925년 3월에 아쉽게도 ‘충북도내 무자격교원 도태’라는 이유로 그는 청남학교에서 물러나야만 했다.¹⁹⁾ 게다가 같은 해 6월 4일에는 ‘망선루 기부금 횡령사건’²⁰⁾으로 청주경찰서에 인치되었지만 취조한 결과

8) 조건상, 1961, 「애국지사 김태희」, 『淸州誌』, 313~319쪽.

9) 在上海日本總領事館, 1932, 『朝鮮民族運動年鑑』, 168쪽.

10) 在上海日本總領事館, 1932, 『朝鮮民族運動年鑑』, 64쪽

11) 在上海日本總領事館, 1932, 『朝鮮民族運動年鑑』, 65쪽

12) 「제15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록」, 1919년 12월 13일.

13) 『대한매일신보』, 1920년 6월 19일자.

14) 『동아일보』, 1921년 10월 6일자.

15) 『동아일보』, 1921년 5월 2일·4일자.

16) 「충청노회 제3회 정기노회록」, 1927년 6월 7일자.

17) 『매일신보』, 1924년 4월 8일자.

18) 『동아일보』, 1924년 6월 9일자.

19) 『동아일보』, 1925년 4월 2일자.

20) 『동아일보』, 1925년 6월 4일자.

사실무근이라고 판명되어 풀려났다. 이후 『동아일보』, 청주지국의 운영권도 내놓게 되었고, 이후로 그의 청년회 활동은 사라졌다. 그해 8월 1일에 朝鮮文 기자로만 조직된 淸州記友團이 조직되자, 그는 임시회장으로 활동하였다.²¹⁾

1927년에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합작하여 新幹會를 조직하자,²²⁾ 청주에서도 12월에 지회가 설립되었다.²³⁾ 김태희는 임시의장을 맡으며 신간지회를 적극적으로 이끌었으나 아쉽게도 1931년에 신간회는 이념의 벽을 넘지 못한 채 해소되었다.

1928년에는 청주기독교청년회와 여자기독교청년회를 주축으로 ‘청주야학회’를 개설하여 남학생반·여학생반·주부반 세 반을 운영하였다. 청주야학회는 점차 성행하여 1932년에는 교육관도 신축하였고 봉사자 교사를 16명을 둘 정도였다.²⁴⁾

김태희의 말년은 신간회 해소 이후 교회 활동만 전념하였다. 하지만 그는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밀러 선교사와의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밀러 선교사와 불화설의 한 예이다.

민노아(밀러) 선교사가 집회를 열어 성인반 성경공부 시간에 예화를 들어 설명하는 중, 조선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 죄값으로 나라가 망한 것이라고 하자, 강의를 듣던 김태희는 크게 노하여 “우리가 어찌하다 나라를 잃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동정은 못할망정 죄값으로 망하였다 하니 그게 무슨 말이고! 선교사로서 우리 민족을 이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는가?” 라고 호통을 치며 좌석을 떠났다고 한다.²⁵⁾

21) 『동아일보』, 1925년 8월 4일자.

22) 『동아일보』, 1927년 1월 20일자.

23) 『동아일보』, 1927년 12월 25일자.

24) 『기독신보』, 1928년 10월 24일자.

25) 李昌秀, 1998, 『回想錄』, 계명사, 247쪽.

여기에서 김태희의 강한 민족의식을 느낄 수 있다. 반면에 밀러 선교사는 우리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 죄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된 것이라는 철저한 종교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일로 김태희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교회에서는 장로의 결석을 문제삼아 김태희에게 책벌이 내려졌다. 하지만 밀러의 말실수가 참작이 되어 책벌은 없었던 것으로 하였다.²⁶⁾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도 밀러 선교사는 일제의 감시와 압력으로 政教分離 정책을 행하였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종교와 관련이 없는 행사를 금지하거나 철저히 종교적인 행사만을 강행하였다. 그러자 신앙보다는 민족운동을 더 우선시한 김태희와의 불화는 점점 더 심해져 갔다. 결국에는 1932년부터 강요된 신사참배를 교회에서 수용하지²⁷⁾ 김태희는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하지만 김태희는 신탄진에 가서도 야학을 개설하여 학생들을 교육하였다.²⁸⁾

김태희는 1936년에 6월 29일 그의 나이 60세에 조국의 독립도 보지 못한 채 운명을 달리하여 신탄진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1959년에는 정인택 도지사의 후의로 미원면 운암리 선영에 이장되었다. 이후 김태희는 1963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 받았고,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으로 추서 받았다.

2. 사상·경제적 배경

1) 사상적 배경

김태희의 학업기록은 없지만, 그가 어느 정도 학식이 있었음을 다음 자료들을 통해 알 수가 있다. 먼저, 집안 형님에게 쓴 편지를 살펴보면, 유학을 공부한 선비임을 알 수 있다.

26) 李昌秀, 1998, 『回想錄』, 계명사, 248쪽.

27) 全順東·崔東俊, 1999, 『淸州 YMCA 五十年史』, 대청정판사, 54쪽.

28) 趙健相, 1961, 「愛國志士 金泰熙」, 『淸州誌』 313~319쪽.

심하게 파리한 몸이 흑독한 더위에 시달려 점심 때 베개에 누워 낮잠(黃嬾)을 자려했더니 어디서 온 옥동자가 절을 하면서 편지(金緘)를 올렸습니다. 두 손으로 받들어 읽음에 편지에 가득한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 아님이 없었습니다. 경서 속에서 취하여 비유하고, 도의 진미를 알아차린 말이 편지의 언사 밖에 넘쳐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깨우침이 황홀하여 가을 시원한 바람에 병에서 소생하는 듯하였습니다. 어찌 척채(尺蔡: 점을 치는 큰 거북)와 공벽(拱壁: 두 손으로 받칠 정도의 큰 구슬)을 얻는 것 같을 뿐이었습니까? 다만 저에게 칭찬함이 지나쳐 감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칭찬하기보다 친구 간에 서로 격려함이 더 낮은 것이 아닙니까? 귀하의 조카가 죽은 것에 놀람을 이기지 못하겠는데, 덕 있는 집안에 일찍 요사함은 혹 악연이 안정되지 않아 그런 것입니까? 저는 귀하에게 올릴 말씀이 없지만, 오직 부모님이 평안하신 것으로 다행하게 여깁니다. 나머지는 오래지 않아 뵈겠기에 답장을 줄입니다. 편지받는 날 기복제 태회는 절하고 답장을 올립니다.²⁹⁾

이밖에도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한서를 교육시켰다.³⁰⁾ 이후 그는 신학문을 접하였으며,³¹⁾ 1900년에 밀러 선교사가 청주로 선교하러 왔을 때 별 거부감 없이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인다.³²⁾

29) 「집안 형님에게 쓴 편지」 “峻嶒瘦骨 政若酷熱 頽臥午枕 方謀黃嬾 何來玉童 拜獻金緘 雙擎百讀 滿幅屢言 無非心畫 其取譬經義 咀嚼道味 溢於辭外 令人喚醒 況羨秋風病蘇矣 奚翹得尺蔡拱壁之玩而已哉 但至期許之過當 不敢承當 與其褒美 曷若切偲之爲愈也 令姪見闕 不勝錯愕而抑疑 德門之夭或未定歟劣狀 無足仰塵於 清覽者而惟以省安爲幸耳 餘在未久面剖不罄瀆謝蒙惠日 恭服弟 泰熙拜謝上.”

30) 李昌秀, 1998, 『回想錄』, 계명사, 245~246쪽.

31) 진순동·최동준, 2003, 「독립운동과 일석 김태희」, 『기독교와 충북근대교육』, 동해출판사. 구체적으로 어떤 신학문을 접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고, 신학문을 접했다는 기록만 있다.

32) 해리 로즈 지음, 최재건 옮김, 2009,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302쪽 ; 全淳東·崔東峻, 1999, 『淸州 YMCA 五十年史 (1948~1998)』, 대청정판사, 21쪽.

이 당시 청주는 천주교 사상이 일찍 유입되었다. 청주는 가톨릭의 중심지로 1799년에는 원시보 야고보·배관겸 프란시스코가 순교하였고, 1801년 신유박해 때 김사집 프란시스코가 순교를 하였다. 1866년 병인박해 때는 오반지 바오로가 순교를 하여 4명이 석교 밑에서 순교를 하였다.³³⁾ 뒤를 이어 개신교인들이 들어와 선교하였는데, 먼저 감리교 선교회가 여러 차례 선교하였지만 정착하지 못하였다. 1893년 1월 28일 ‘장로교 정치를 하는 선교공의회 모임’에서 미 점유지역인 충청·전라 두 도를 남장로교 선교회가 차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1896년 남장로교의 인력부족으로 선교활동을 침례교에 넘겨주었다.³⁴⁾ 침례교도 1900년에 재정난을 이유로 철수하였고, 북장로교가 들어오게 되어 밀러 선교사가 충청도를 배정받아 선교하러 왔다.

이렇듯 청주는 병인박해 이후 외국 선교사들이 자주 들어와 선교를 하였기에 외래 사상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분 사회였던 조선의 젊은 지식인들은 기독교의 평등사상과 예수를 통한 구원사상이 당시 조선을 노리는 많은 열강들을 막아내고 구원해 줄 수 있을거라 믿었기에, 이러한 신사상에 많은 호응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1900년에 밀러 선교사가 청주에 전도하러 왔을 때, 육거리 시장에서 김태희와 몇몇 청년들을 만나 인연을 맺게 되었다.³⁵⁾ 밀러 선교사는 그들을 전도하였으며, 그들의 도움으로 1904년 남문 밖에 여섯 개의 방이 있는 커다란 초가집 한 채를 구입하여 1904년 11월 15일에 청주 읍교회를 설립하였다. 당시 김태희와 함께 교회 창립 신도가 된 이는 김원배·방홍근·이영균·김재호·이범준 등이었고, 그 중 김원배·방홍근은

33) 충북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사업회, 2002, 『충북기독교백년사』, 동해출판사, 122~123쪽.

34) L.G Paik, 1925,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4~185쪽 ; 해리로즈 지음 최재건 역음, 2009,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300~301쪽.

35) 해리로즈 지음, 최재건 역음, 2009,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300~302쪽.

청남학교를 함께 설립한 청년들이었다. 그 후에 장로가 되어 교회의 중심축이 되었던 청년은 김태회를 비롯해 최영택·이동순·곽경한·김경한·김정현·김종원·최원진·이호재·서상필·최창남·이창재 등이다.³⁶⁾ 이중 청남학교 교사로도 함께 활동하였고, 후에 청년회 활동, 신간회 활동도 함께 한 청년은 최창남이다. 최창남은 김태회를 이어 청남학교의 5~6대 교감을 지냈다. 이호재와 이창재, 김종원은 김태회와 함께 청남학교의 교사로도 활동하였고, 청년회 활동도 함께 한 청년들이다.

밀러 선교사는 처음 청주읍교회 설립 당시 구국의 열정을 가진 청년들의 도움으로 교회를 설립하였기에 그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였다. 청남학교 건물도 구입하여 지원하였으며, 1908년에 청남학교가 설립인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밀러 선교사가 경영권을 넘겨받아 설립인가를 쉽게 받게 해주었다. 이렇듯 민족청년들에게 호의적인 밀러 선교사에 의해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인 김태회는 청주읍교회의 교인이 되어 1909년에는 기독교 청년회 초대회장으로 활동하였고, 1920년에는 장로로 피택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그의 민족주의 사상을 뛰어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교회 내에서의 그의 활동은 청년 때부터 교회를 떠날 때까지 활발히 이끌어 왔지만 야학과 물산장려·금주·금연 등 사회 계몽운동 위주로 전개하였다. 심지어 교회내의 면려회 활동을 하면서도 신앙 위주의 활동인 면려회 조선연합회에는 가입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1920년대 후반 일제가 교회에 종교활동 외에 어떠한 활동도 못하게 압력을 가하자, 밀러 선교사는 이를 받아드리게 되었고, 신사참배까지도 수용하자, 김태회는 신앙마저 내려놓고 교회를 떠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 경제적 배경

김태회는 학교도 설립하였고, 대동청년단과 임시정부에 독립운동자

36) 충북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사업회, 2002, 『충북기독교백년사』, 동해출판사, 144~148쪽.

금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또한 그는 망선루 입찰금도 내었고, 청년회와 신간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그가 이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어디서 나왔을까? 현재의 후손들은 다만 선대로부터 내려온 땅이 많이 있었다고만 들었을 뿐 재산 형성과정에는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다만 14세손 종주가 무신난 때 공을 세워 땅을 하사받았고 그 땅을 후손들이 대대로 물려오다가 20대의 김태희가 외동아들로 물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태희가 살고 있었던 청주시와 선영이 있는 미원면 일대의 토지대장을 조사해 보니 모두 33필지가 나왔다. 토지대장에 등록할 당시 청주 주소의 김태희 명의의 땅은 22필지이고, 선영이 있는 미원면 주소의 김태희 땅은 11필지인데 미원면 땅의 경우 주소가 미원면 자양리로 되어 있어서 좀 더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청주 주소로 등록된 김태희의 땅 22필지에 대해서만 서술하고자 한다.

<표 1> 김태희의 토지소유 현황³⁷⁾

번호	토지	면적	주 소	査 定	과세 가격	내 역	매입 날짜	과세 가격	매도 날짜	과세 가격
1	밭	352평	개신리 440번지	1912년 10월10일 김태희	14원 08전				1916년 9월29일 李穆夏	6원 68전
2	임야	1정 6정보	개신리 산9번지	1916년 10월11일 김태희					1935년 12월26일 國	
3	밭	688평	금천정 7번지	1912년 10월25일 김태희	68원 80전	논으로 변경 1936년 7월10일			1916년 9월20일 臚部德松	44원 72전
4	논	736평	금천정 27번지	1912년 10월31일 김태희	66원 24전				1920년 12월15일 李熙俊	55원 20전
5	대지	126평	금천정 128번지	1912년 11월1일 김태희	15원 12전				1921년 7월15일 金玉	5원 67전
6	밭	642평	금천정 121-1	1912년 11월1일 김태희	83원 46전				1921년 7월15일 金玉	32원 10전

7	밭	1,619 평	금천정 76번지	1912년 10월31일 김태희	161원 90전	1921년 11월4일 719평 분할해 서 매도			1922년 2월3일 719평 朴元根	71원 90전
8	보거 밭	137평	금천정 76-2번지	1920년 11월18일 김태희	13원 70전	금 천 정 76번지 분할			1922년 3월23일 國 ³⁸⁾	13원 70전
9	밭	760평	금천정 76-3번지	1920년 11월18일 김태희	76원	금 천 정 76번지 분할			1922년 3월6일 崔鉉東	76원
10	보거 밭	3평	금천정 76-4번지	1920년 11월18일 김태희	30전	금 천 정 76번지 분할			1920년 11월19일 國	30전
11	대지	12평	남주정 351번지	1912년 11월18일 김태희	33원 60전	도 로 대 지로 편 입 11.7 평 매도			1918년 9월30일 崔柄基	32원 76전
12	대지	192평	남주정 534번지	1912년 11월18일 김태희	460원 80전	도로 대 지 86.4 평만 매 도. 나 머지 땅 도 로 명 기 최병 기 명의 로바뀜			1918년 9월30일 崔柄基	207원 36전
13	밭	1,218 평	북대리 89-1번지	1913년 1월13일 김태희	48원 72전				1933년 11월8일 金在九	23원 14전
14	논	791평	분평리 34-1번지	1912년 12월3일 김인행	142원 38전	김 인 행 → 김 태 희 → 이 흥진	1926년 5월3일 김인행 사정	142 원 38전	1926년 6월5일 李弘辰	67원 23전
15	밭	418평	분평리 35번지	1912년 12월3일 김인행	41원 80전	김 인 행 → 김 태 희 → 이 흥진	1926년 5월3일 김태희 구매	41 원 80전	1926년 6월5일 李弘辰	2원 717원
16	임야	1정 6정보	용정리 산47 산47-1	1917년 10월5일 김태희					1930년 2월5일 金敬瑞 외 4인	

17	분묘지	537평	외덕리 207-1번지	1912년 12월29일 김태희	24원 16전	1928년 4월12일 밭으로 변경			1932년 2월14일 羅相殷	3원 24전
18	제방밭	711평	석교정 113-2번지		362원 61전	1932년 1월27일 석 양 정 113번지 에분할			1932년 4월26일 金敎中	362원 61전
19	하천밭	13평	석교정 113-3번지		6원 63전	1932년 1월27일 석교113번 지 에 서 분할			1932년 4월26일 金敎中	6원 63전
20	밭	1,204평	화흥리 113-1번지	1912년 10월30일 김인행	156원 52전	김 인 행 → 김 태 희 → 김 교중	1922년 3월31일 김태희	156원 52전	1932년 4월26일 金敎中	361원 20전
21	밭	437평	화흥리 460-1번지	1912년 10월10일 김태희	43원 70전				1928년 9월11일 金昌奎	19원 66전
22	밭	375평	화흥리 488번지	1912년 10월10일 김태희	26원 25전				1928년 9월11일 金昌奎	2원 25전
총계 : 논 1,527평, 밭 8,214평, 대지 330평, 임야 18,000평										

토지 종류별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논(2필지), 밭(15필지), 대지(3필지), 임야(2필지)이다. 논은 1,527평대지는 330평, 임야는 18,000평, 밭은 8,214평이다. 이 토지들을 년도별로 매매한 현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 김태희의 토지매매 현황39)

연도	매도날짜	내용	사정·매입 파세가격	총파세가격	매도인	매도시 파세가격
1916년 (2건)	9월20일	금천정밭688평	사정가 68원80전	82원88전	臚部德松	44원72전
	9월29일	개신리밭352평	사정가 14원8전		李穆夏	6원 68전

37) 1912년에 작성된 청주시 토지대장

38) 매도인의 ‘國’은 정부 수용을 의미한다.

1918년 (2건)	9월30일	남주정대지12평	사정가 33원60전	494원40전	崔柄基	32원 76전
	9월30일	남주정대지192평	사정가 460원80전		崔柄基	207원36전
1920년 (2건)	11월19일	금천정발3평	사정가 30전	66원54전	國	30전
	12월15일	금천정논736평	사정가 66원24전		李熙俊	55원20전
1921년 (2건)	7월15일	금천정대지126평	사정가 15원12전	98원58전	金玉	5원67전
	7월15일	금천정발642평	사정가 83원46전		金玉	32원10전
1922년 (3건)	2월 3일	금천정발719평	사정가 71원90전	161원60전	朴元根	71원90전
	3월 6일	금천정발760평	사정가 76원		崔鉉東	34원20전
	3월23일	금천정발137평	사정가 13원70전		國	13원70전
1926년 (2건)	6월5일	분평리밭791평	매입가 142원38전	184원18전	李弘辰	67원23전
	6월5일	분평리밭418평	매입가 41원80전		李弘辰	2원717전
1928년 (2건)	9월11일	화흥리밭437평	사정가 43원	69원25전	金昌奎	19원66전
	9월11일	화흥리밭375평	사정가 26원25전		金昌奎	2원25전
1930년 (1건)	2월5일	용정리임야 1정 6,000보			金敬瑞외 4인	
1932년 (4건)	2월14일	외덕리밭537평	사정가 24원16전	549원92전	羅相殷	3원24전
	4월26일	석교정밭711평	사정가 362원61전		金敎中	362원61전
	4월26일	석교정밭13평	사정가 6원63전		金敎中	6원63전
	4월26일	화흥리밭1,204평	매입가 156원52전		金敎中	361원20전
1933년 (1건)	11월8일	복대리밭1,218평	사정가 48원72전	48원72전	金在九	23원14전
1935 (1건)	12월26	개신리임야 1정 6,000보			忠淸北道	

위 표를 좀 더 살펴보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할 때
과세가격이 더 많아야 정상이다. 그 이유는 해가 지나면서 땅값은 그
대로 이거나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32년 화흥리 밭 1,204
평을 매입시에는 156원 52전이 과세가격이었지만 매도할 시에는 361
원 20전의 과세가격을 내었다. 그 당시 땅값에 관한 신문 기사를 보면
미국값의 상승으로 땅값은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기사⁴⁰⁾로 보아 이 화
흥리 매매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 그리고 국가에 수용된 땅들은

39) 1912년 청주시 토지대장

40) 『매일신보』, 1917년 7월 12자.

모두 사정받을 당시 그대로의 과세가격으로 수용되었다. 그 외에 14건은 모두 사정받을 당시 책정된 과세가격 보다도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매도시 과세가격이 적혀 있다. 이것은 실제로 낮은 가격으로 매도했을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매도가격 신고를 적게 해서 과세가격을 적게 내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거의 거래금액을 낮게 신고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땅 가격은 사정할 당시의 땅 가격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12년에는 쌀 한 가마니의 평균 가격이 5~6원이었다.⁴¹⁾ 1916년에 매도한 땅 가격이 82원 88전이면 당시 쌀 16가마니 정도였고, 현 시세는 350만 원 정도이다. 그가 소유한 토지 모두를 사정받을 때 과세가격으로 모두 환산해 보면 약 2,000원 정도이다. 1920년대 경성에서 기와집 한 채 가격이 400원 정도이니 경성에서 집 5채를 소유할 정도이고, 지방에서는 그 이상의 재산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50억 정도의 고층빌딩 한 채를 소유할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그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고, 집에서도 양봉을 하고 있었다. 또한 그 많은 토지에서 도지세를 받고 있었기에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을 그의 활동과 맞물려 1916년부터 2~3년 주기로, 2~3건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였고, 그가 신탄진으로 이주할 당시까지 모든 토지를 매매하였다.

토지를 매매한 년도를 살펴보면 1916년과 1918년에 2필지씩 매매하였는데 그때는 대동청년단 활동을 할 때이고, 1920년과 1921년에도 2필지씩 매매하였는데 그때는 임시정부 일을 할 때이다. 그리고 그가 청주청년회를 이끌면서 1922년에 망선루 입찰을 볼 때도 토지를 매매하였다. 또한 그는 1925년에 청남학교를 그만두고 1926년에 청주읍내에서 지물포를 경영하게 되었는데⁴²⁾ 그때도 토지를 매매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김태희가 청주를 떠날 때 토지를 매매하였다. 이렇듯 토지

41) 『매일신보』, 1912년 2월 22자.

42) 『충청리뷰』, 1995년 8월호, 23쪽, 「一石 2代孫 金容九와의 대담」.

매매는 김태희의 활동과 맞물려 있어서, 토지 매매대금이 활동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서술하도록 하겠다.

Ⅲ. 한말의 국권회복운동

1. 교육 활동

김태희는 方興根·金元培와 함께 근대 사립학교 廣南學校를 1903년 4월 1일에 설립하였다.⁴³⁾ 김태희가 교장을 맡아 학교를 운영하였는데, 廣南學校는 ‘널리 인재를 모아 교육’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청주에 선교를 온 밀러 선교사는 김태희를 비롯한 몇몇 청년들과 인연을 맺어 그들의 도움으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1904년 선교 교육사업으로 보부상에 소속된 기와집을 구입하여 광남학교를 운영하는 청년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밀러선교사는 그들에게 계속 학교를 운영하게 하면서 교사수급만 더 신경 써 주기로 하였다. 이 때 이름을 淸南學校(청주의 남쪽)로 개명한 것으로 보인다. 밀러 선교사는 교육선교로 청남학교 이외에도 淸新女學校·淸西學校(신대리 신대교회)·淸北學校(목방리의 목방교회)·淸東學校(괴산 청천리 청천교회)를 세웠다.

그 후 1906년 8월 26일에 청주읍내에는 큰 물난리가 났는데 남문 밖에 있던 청남학교도 큰 피해를 입었다.⁴⁴⁾ 그 당시 지역사회와 청주읍교회의 후원금으로 1908년 현재의 교회 옆에 위치한 교실 4개가 있는 건물을 구입하여 이전하게 되었다.⁴⁵⁾

그런데, 1908년 8월에 ‘사립학교령’이 공포되고 모든 사립학교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인가받기가 어려워졌지만⁴⁶⁾, 미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43) 「청남학교 연혁지」.

44) 大雄春峰, 1923, 『淸州沿革誌』, 우주출판사, 15~16쪽.

45) 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86, 『THE KOREA MISSION FIELD』 4, 139쪽.
1909년 계군보고서.

46) ‘사립학교령’이 공포되기 전에는 사립학교가 전국에 6,000여 개가 넘었

학교는 인가받기가 수월하였다. 그러자 청남학교의 운영권을 밀려 선교사에게 넘기고, 학부대신의 설립인가를 1908년 8월 31일에 받게 되었다. 설립자 겸 교장은 밀려 선교사이고, 교감은 김태희가 맡았다. 실질적 운영은 김태희가 계속해서 하였다.

청남학교의 운영체제를 살펴보면, 청남학교는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개화기 소학교의 학제에 따라 보통과 3년, 고등과 3년 학제로 이루어졌지만, 1908년 설립허가를 받은 후부터 통감부의 지시를 따라야 했기에 보통학과는 4년제로 교육하였고, 고등과는 2년을 교육하였다. 그러다가 1921년부터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6년제로 바뀌게 되었다.⁴⁷⁾

교육과정은 설립초기에는 “신학문을 교육하였다”라는 선교사 기록만 있다. 청남학교는 1908년 설립인가를 받은 후 일제가 지정한 교과목과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청남학교는 공립보통학교와 별 차이가 없었으나, 청남학교 교육의 특징은 외국인 선교사가 운영한 학교였기에 상대적인 자율성을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었다. 1915년 ‘改正私立學校規則’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성경시간을 따로 두어 학생들에게 성경말씀을 가르쳤지만, 개정사립학교 규칙이 발표된 이후 성경과목이 교과목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토요일에 ‘외울말씀’이라는 시간을 두어 성경말씀을 외우게 하였는데, 매일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하였고, 성경말씀을 배운 후 토요일에 암송하게 하였다. 또한 창가 시간에는 찬송가를 함께 불렀다라는 졸업생 증언이 있다.

또한 공립학교에서는 역사시간에 일본의 역사와 지리를 가르쳤는데, 청남학교에서는 조선어와 역사시간에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김태희의 제자 이창수가 쓴 자서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던 것이 ‘사립학교령’이 공포되고 나서 인가를 받은 학교는 1912년에 조사한 결과 817개였다.

47) 淸南初等學校總同門會 開校100周年紀念事業會, 2004, 「淸南초등학교사 연구」, 『淸南百年史』, 151~154쪽.

구약에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모세의 史記와, 신약에 이스라엘 전 국토가 로마에 예속되어, 신음하는 이스라엘 국민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기록들을 읽을 때 누구나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입장을 비교해 보지 않을 신도가 없었을 것이다. 당시 이호재, 이창재 선생님께서 고조선 시대부터 李朝와 구한말의 역사를 간간히 들려주셨다. 그리고 합병된 후의 독립운동과 각처의 의병 봉기와 만주 별관의 군관학교, 청산리 대첩과 상해 임시정부의 치적과 국내에서의 군자금 조달, 고종황제의 헤이그밀사 파견 등 9세에서 13세까지 어린 뇌에 애국 사상이 박히고 박혔으니 일생동안 뇌에서 지워질 수 있을 것인가? 같은 어린이이지만 공립 보통학교 학생은 애국이니 독립이니 하는 언어조차 듣지 못하여 생각의 차가 천양지간이었다.⁴⁸⁾

다른 공립학교에서는 애국이니 독립이니 입조차 떼지 못하였는데, 청남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글과 역사를 가르치면서 민족의식과 애국사상을 고취시켰던 것이다. 김태희가 직접 역사를 가르친 것은 아니지만, 교감으로 학교를 운영하였던 그가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애국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이러한 수업을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

청남학교의 학생수가 늘어나면서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근무하게 되었다. 교사는 민족의식이 강한 선생님들이 근무하였다. 그 중에는 광재기(1893~1952)⁴⁹⁾, 최창남(1897~1980)⁵⁰⁾ 등 당시에 민족운동을

48) 李昌秀, 1998, 『回想錄』, 계명사, 48쪽. 이창수는 1926년 3월 20일 16회 졸업생이다.

49) 광재기는 1893년 청원군 강외면 상봉리에서 출생하여 일찍이 서울의 경신학교를 졸업하고 귀향하여 청주의 청남학교 교사로 있다가 1909년 대동청년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19년 3.1운동에도 참여하였으며, 그해 7월에 북만주로 망명하여 金元鳳, 李鍾巖 등 13명의 동지들과 의열단에 참가하여 항일투쟁에 나섰으며 국내로 들어와 밀양폭파사건을 모의하다 동지 具榮泌의 밀고로 거사 직전에 발각 체포되어 8년형을 선고되어 옥고를 치르다가 1년 10개월 감형으로 1927년에 출옥 후 다시 망명하여

한 선생님들도 있었고, 청남학교 출신으로 민족운동을 한 배민수(1897~1968)⁵¹⁾도 있었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교사로는 제1회 졸업생 출신인 김종원이 학교를 졸업하고 청남학교 교사로 11년간 근무하였고, 청주청년회 총무로도 활동하였다. 조선어와 한문교사였던 이호재는 수업시간에 백의민족, 동방예의지국을 강조하며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역설하였다. 이호재의 동생인 이창재는 조선어와 산술을 담당하였으나, 아침 조회시간이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이야기, 로마의 압제에서 신앙을 지키고 메시아 출현을 기대하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자주 들려주며, 학생들에게 우리나라가 해방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조선어·영어와 수학을 담당하였던 방윤근은 서울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청남학교에서 근무하였는데, 조선어 시간에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음악을 가르쳤던 김봉학은 교회에서 성가대로 활동하였고, 청주청년회에서 명포수로 활약하였다. 박노경은 처음에는 강서초등학교 교사로 있었지만, 뜻한 바가 있어서 교사 대우는 약하였지만, 민족교육을 하는 청남학교로 와서 학생들을 교육하였다. 정순경은 음악과 가사 교사로 수업시간에 반일감정과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수업을 하였으며, 신사참배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끝까지 항거하다 투옥되기도 하였다.⁵²⁾

만주 상해 노령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한 인물이다. 김태희의 부인도 꼭씨 부인이다.

50) 청남학교에서 국어를 담당하였으며 어린이를 위한 동요·동시를 지었다. 그는 충북지역의 어린이 운동가·아동문학가·한글운동가이다. 1932년에 최현배 선생을 초청하여 7일 동안 한글강습회를 열기도 하였다.

51) 청남학교 3회 졸업생(1911년 3월 20일 졸업)으로 1917년 평양 숭실학교에 재학 중에 조선국민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다 피체되어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1919년에는 함경북도 성진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피체되어 징역 9개월을 살았다. 출옥한 후 평양신학교에 들어갔다가 미국으로 유학하여 1933년에 시카고 매킨신학교를 수료하고 귀국하여 목사가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청주진위대 하사로 근무하다 1907년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이 되어 활동하다가 피체되어 1908년 8월 서대문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김태희가 운영한 청남학교는 민족의식이 강한 선생님들을 선발하여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애국사상을 고취하는 교육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어와 역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영어·수학·음악·가사 모든 선생님이 아침 조회시간과 수업시간 중간중간에 학생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교육하며 애국심을 고취하였고, 민족의식과 반일감정을 일깨운 것으로 보인다.

청남학교는 1922년 청신여학교와 통합하기 전까지 남학교였으나, 통합 후 남녀공학으로 학생수가 증가하였다. 그러자 교실이 부족하여 청주읍교회 예배당을 임시교실로 사용하기도 하였다.⁵³⁾ 그러던 중 청주 청년회에서 망선루를 구입하여 청주읍교회에 기증하였고, 이를 이전 복원·건축하여 청남학교 교사로 사용하였다.

다음은 청남학교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설립년도에 관해 1903년 4월 1일설과 1904년 11월 1일설이 있는데, 현재 널리 알려진 것은 1904년이라는 설이지만 필자가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1903년설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근거는 청남학교의 연혁지이다. 그 연혁지에 “一千九百三年四月一日 淸州郡 南州內面(現 南門路一街) 瓮城里에 私立 廣南學校 創設. 設立者 方興根, 金泰熙, 金元培 氏等 開校(方興根氏宅에서)”라고 적혀 있다. 처음 작성한 청남학교 연혁지에는 1903년 4월 1일에 광남학교를 창설했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4대 학감인 崔昶楠⁵⁴⁾이 재직 중에 1903년 4월 1일 기록에 빨간줄을 그어놓고, 1904년 11월 1일로 개정해 놓았다. 그리고 그는 연혁지 제일 앞장에 원고지 한 장을 끼어놓고, “學校沿革의 錯誤라는 제목 아래 甲辰(1904) 11월 1일 方元根씨 宅에서 시작, 학생 15명, 1903년 4월 1일이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

52) 淸南初等學校總同門會 開校100周年紀念事業會, 2004, 『淸南百年史』, 일광인쇄사, 70~74쪽.

53) 「경기충청노회 제 24회 회의록」 1923년 6월 13일자.

54) 1922~1945년 3월 31일까지 23년간 청남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1925년 이후 제5~6대 교감을 맡아서 하였다. 1대부터 4대 중 1925년 3월 말일까지는 김태희가 교감을 맡아서 하였다.

의문을 제기하면서 방흥근을 방원근으로 고치고, 1903년을 1904년 11월 1일로 고쳐놓았지만 확실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것은 1922년부터 청남학교에 근무한 최창남이 누군가가 처음 써놓은 학교 연혁지를 확실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개정해 놓았던 것이다.

두 번째 근거로 「청남학교 연혁지」 뒷장에 졸업 횟수와 졸업생 누계이다. 원문기록에는 1회 졸업생이 1906년 20명으로 나와 있고, 2회는 1909년 12명 누계는 32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때 당시 보통과 3년, 고등과 3년이라 1903년 입학한 고등과 학생은 1906년에 졸업하는 것이 맞고, 보통과인 경우는 6년 후인 1909년 졸업생과 일치한다. 만일 1904년 11월 1일에 설립되었다면, 1906년 졸업은 1년 만에 졸업하는 것이 되어 설립년도와 졸업년도가 학제에 맞지 않는다. 또한 고등과인 경우도 1904년 11월에 설립되었다면, 졸업년도는 1908년 3월이고, 보통과인 경우는 1911년 3월이야 한다. 그러므로 1903년 4월 1일 설립설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근거는 선교사의 기록이다. 미국 장로교 한국선교회사(韓國宣敎會史)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교회부지를 마련하는 일은 1904년에 한 기와집을 사는 일에서 시작하였다. 그 집은 보부상 조합에 속해 있었으나 그 건물이 팔릴 때는 학교건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 학교는 이 읍에 사는 몇몇 청년들이 이끌고 있었다.”⁵⁵⁾

“1904년, 밀러와 김씨가 청주에 도착했을 때 이 읍에서 이미 가장 유능한 젊은 남자들이 남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선교사들과 교회가 선생을 확보하는데 더 힘써 줄 것을 부탁하였고, ~밀러는 또한 보부상 조합에게서 한 기와집을 구입하였는데, 남자 청년들이 그것을 학교 건물로 사용했다. 그렇게 하여 현재의 교회부지에 학교가 시작되었

55) Harry A Reodes. A.M.D.D. 2009,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volume.1.(1884~1934), 307~308쪽.

다. 그 학교가 오늘날 남녀 아이들이 다니는 보통학교가 되었다. 그들의 도움으로 현재의 교회부지를 구입했다. ~학교를 개설한 몇몇 청년들은 가장 훌륭한 가문 출신들로서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되었다.”⁵⁶⁾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04년 이전에 이 읍의 몇몇 청년들이 보부상 조합에 속해 있던 건물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고, 밀러가 그 건물을 구입해서 청년들에게 주어 학교를 계속 운영하였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광남학교는 밀러가 1904년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존재한 것으로 보아서 1903년설이 유력하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광남학교에서 청남학교로 바뀐 년도이다. 전순동은 “1904년에 광남학교를 개교하고, 1908년 교명을 청남학교로 바꾸어 청주지역 민족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⁵⁷⁾라고 하였지만,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9일자 본사광고란에 “淸州郡 南門 外 淸南學校 事務所內에 金泰熙氏를 本支社員으로 認定하였기 茲以社告 하오니 該附近地에 本社申報 購覽하실 僉君子는 右氏에게 請求하심을 希望함”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1907년에 벌써 청남학교라는 교명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대한매일신보』에 청남학교라는 교명이 들어간 광고가 3개월 이상 실려 있어서 1908년 청남학교로 교명을 바꾼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현재까지 광남학교 개교일로 알려진 1904년 11월 1일은 밀러 선교사가 청년들에게 학교 건물을 사주어 청남학교로 교명을 바꾼 날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근거는 1909년 계군(Edwin Kagin) 선교사의 보고서⁵⁸⁾이다.

56) Harry A Reodes. A.M.D.D. 2009,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volume.1.(1884~1934), 313~314쪽.

57) 全淳東·崔東峻, 1999, 「日帝期 淸州地方의 民族教育運動-淸南學校를 중심으로」, 『중원문화연구』 2:3, 중원문화연구소, 95쪽.

58) 한국에 파견된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일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것을 모아서 한국기독교사연구회가 1986년에 『THE KOREA MISSION FIELD』라는 책을 년도 별로 발간하였는데 계군의 보고서는 4권 139쪽에

약 5년 전에 교회 옆에 한 오래된 건물에서 학교가 시작되었는데 벽은 금이 가고 마루 바닥에 구멍이 나고 지붕도 새는 낡은 건물이었다. 하나뿐인 조명도 한 지 바른 격자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뿐이었다. 여기서 매일 한 명 또는 어쩌다 두 명의 선생들이⁵⁹⁾ 배움에 목마른 20내지 30명의 남자아이들을 가르쳤다.

위 보고서는 계군선교사가 1904년 선교 교육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청남학교의 모습을 보고한 것이다.

셋째, 청남학교가 밀려 선교사에게 운영권을 넘긴 이유가 대부분의 연구에서 청남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넘긴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⁶⁰⁾ 그러나 청남학교 설립자들의 토지대장을 조사해 보니, 김태희는 땅을 22필지 이상 소유하였고, 방흥근도 김태희 보다 그 이상의 땅인 36필지를 소유하였다.⁶¹⁾ 또한 김원배도 1905년 사망하였지만, 사망하면서 교회에 100원 건축헌금을 내놓을⁶²⁾ 정도로 재산가여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밀려 선교사에게 운영권을 넘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운영권을 넘긴 이유를 ‘私立學校令’으로 보았다.

넷째, 淸新女學校의 설립자에 관한 설이다. 현재까지 청신여학교는 김태희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선교사의 기록에 따르면⁶³⁾ 밀려 선교사의 부인 도티여사(Susan A. Doty)⁶⁴⁾이다. 도티여사는 1907

수록되어 있다.

59) 1905년에 김원배가 사망하고 김태희, 방흥근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60) 全淳東·崔東峻, 1999, 「日帝期 淸州地方의 民族教育運動-淸南學校를 중심으로」, 『중원문화연구』 2·3, 중원문화연구소, 98쪽.

61) 1912년에 작성한 토지대장.

62) 충북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사업회, 2002, 『忠北基督教百年史』, 동해출판사, 143쪽. 당시의 쌀 한 가마니가 4원이라 100원은 쌀 25가마니로 지금의 500만원 정도이다.

63) Harry A Reodes. A.M.D.D. 2009,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volume.1.(1884~1934), 312쪽.

64) 청주로 사역을 오기 전에 1890~1904년 서울 정신여학교 제3대 교장으로

년 여학생들을 모아서 성경공부반을 운영하게 되었고, 밀러 선교사와 김태희 등의 노력으로 1909년 8월 7일에 학부대신으로부터 청신여학교로 인가를 받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⁶⁵⁾ 설립자는 밀러 선교사이고, 계군(Edwin Kagin) 목사가 교장으로 하여 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실질적 운영은 도티여사가 한국인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주도하였다.

청신여학교는 처음에 13명의 여학생들로 시작되었다. 校舍는 밀러의 집 가까이에 있는 오래된 한옥이었고, 가끔 탑동 선교사 양관에서 수업도 하기도 하였다. 청주읍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선생을 지원하여 학생들을 가르쳤다. 교육은 신학문을 주로 가르쳤는데, 청주읍교회의 유능한 두 청년이 지원하여 한문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⁶⁶⁾으로 보아 읍교회의 두 청년이 김태희와 방홍근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선교사들의 인식이 처음 청주에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교육과 선교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이 처음 접한 전도의 대상자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던 유능한 청년들 김태희·김원배·방홍근이었다. 그들은 광남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함께 교사를 하던 김원배는 1905년에 사망을 하였다. 남은 방홍근과 김태희가 청남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유능한 두 청년은 김태희·방홍근으로 청신여학교에서도 한문수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10년대에 학부모들의 여학생에 대한 교육인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김태희는 도티여사가 여학생 교육을 시작할 때부터 학교설립까지 적극적으로 도운 것을 보면 여학생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청신여학교는 제9회 졸업식을 끝으로 청남학교에 통합이 되었다.⁶⁷⁾

1925년 3월, 일제는 이달 말일까지 도내의 무자격 교원을 도태시키

로 제임하고 있다가 1905년 남편 밀러 선교사를 따라 청주에 와서 1931년 사망할 때까지 청주에서 여성교육운동을 하였다.

65) 「충북노회 사료집」, 74~75쪽.

66) 「충북노회 사료집」, 74~75쪽.

67) 『동아일보』, 1922년 3월 30일자.

겠다는 통지를 각 사립학교에 보냈다. 그 대상에 청남학교 교사가 4명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중 한 명이 김태희였다.

忠北道內 無資格敎員 淘汰. 猝地에 適任者가 없어서 困難
今年 三月末日까지의 運命을 가진 忠淸北道內 各 私立學校
無資格敎員은 淸州私立淸興學校에 2명, 同私立淸南學校에 4
명, 同私立淸北學校에 2명, 陰城私立玫瑰學校에 7명 合하여
十五名인바 同期間前에 敎員合格試驗을 實行코져 各學校에
通志하였으나 一名도 應試코자 하는 者가 無함으로 不得已
全部가 淘汰케 될터이러는데 目下 新學期에 際하여 猝地에
責任者를 얻기도 困難함으로 當地教育界의 一大難問題이라
고.(淸州)⁶⁸⁾

이 때 김태희는 청남학교 교감이었지만 무자격 교원이었고, 교원시험에도 응시하지 않아서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김태희는 1903년에 학교를 설립하여 1925년까지 23년이나 재직한 학교였지만, 이 통지서 한 장으로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이후부터 최창남이 교감이 되어 학교를 운영하였다.⁶⁹⁾

이 교육활동을 통해 본 김태희는 신교육의 선각자로 근대 사립학교인 광남학교(후에 청남학교로 개명)를 1903년에 일찍이 설립하였고, 민족의식이 강한 교사들을 선발하여 학생들에게 민족교육을 하였다.⁷⁰⁾ 교사들은 조선어와 역사시간 외에도 조회시간이나 각 과목의 수업 중간에 우리의 역사를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애국사상을 고취시켰고, 반일의식을 일깨워 주었다. 그 결과 청남학교는 1930년대에

68) 『동아일보』, 1925년 4월 2일자.

69) 「청남학교 교직원 명부」.

70) 李昌秀, 1998, 『回想錄』, 계명사, 248쪽. “김태희 선생님의 일제 저항 태도와 어떻게든 조국애를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김태희 선생님이 먹고사는 일에 개의치 않고 독립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수년을 지켜보면서, 최창남 선생님 역시 깨달은 바가 많았을 것이다.”

신사참배 거부로 구속된 학생들도 있었고, 며칠간 학교가 폐교되기도 하였다. 또한 졸업생 중에는 민족운동가도 나오기도 하였다.

2. 대동청년단 활동

대동청년단은 1909년에 결성되어 일제식민지 시기에 활동하였으나 일제에 발각되지 않아 해방 당시까지 활동한 비밀단체였다. 일제에 발각되지 않았기에 공식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고, 이에 참여한 인사들도 대부분 기록을 남기지 않아 그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다. 다행히 단원이었던 尹炳浩, 申伯雨, 李時說, 徐相日 등이 남긴 회고록에 의하면, 대동청년단은 1907년 신채호의 『이태리삼걸전』의 영향을 받아 ‘청년 이태리당’처럼 구국을 위한 청년결사모임인 이 단체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⁷¹⁾ 보성고보 출신들 중심으로 교남교육회의의 주요 인물들이 주도하여 결성하였는데, 남형우의 집에서 조직되었다.⁷²⁾ 단장은 南亭祐이고, 부단장은 安熙濟, 단원은 80여명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까지 56명이 확인되어 있다.⁷³⁾ 그 중에 김태희도 단원에 포함되어 있다. 단규와 단원은 다음과 같다.

〈 단 규 〉

① 단원은 반드시 피로 맹세할 것

71) 김성민, 2013, 「대동청년당의 결성과 활동」, 『백산 안희제의 생애와 민족운동』, 114~115쪽. 단체 명칭이 대동청년당인지 대동청년단인지 불분명한 이유는 주요 당원이었던 서상일이나 윤병호의 회고에는 대동청년단으로 나오고, 신백우나 안희제에게 전해들은 이종필은 대동청년당으로 표현하여 일치하지 않아 불분명하다. 김성민이 쓴 「대동청년당의 결성과 활동」의 논문에서 “윤병호의 회고를 보면 정당의 기본 요건인 당헌, 당규, 당강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정당적 특성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단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72) 김성민, 2019, 「백산 안희제의 민족운동」, 『내일을 여는 역사』 74,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305쪽.

73) 김성민, 2013, 「대동청년당의 결성과 활동」, 『백산 안희제의 생애와 민족운동』, 115쪽. 윤병호가 회고한 명단 52명과 신백우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45명 명단을 기록했고, 오재식의 『항일순국열사전』에 43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모두 확인된 단원이 56명이다.

- ② 새 단원의 가입은 단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
- ③ 단명이나 단에 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지 말 것
- ④ 경찰 기타 기관에 체포될 경우 그 사건은 본인에만 한
하고 다른 단원에게 연루시키지 말 것

〈 단원 〉

단장: 남형우

부단장: 안희제

단원: 徐相日, 尹顯振, 李浩然, 張建相, 尹炳浩, 李遂榮, 李慶熙, 崔炳贊, 尹璟滂, 車秉轍, 白光欽, 李克魯, 金甲, 朴永模, 尹相泰, 吳尙根, 金思容, 徐世忠, 申伯雨, 朴重華, 尹世復, 申性模, 申八均, 閔樞, 崔胤東, 宋銓度, 金觀濟, 崔浣, 裴天澤, 申相泰, 郭在驥, 金弘權, 李範英, 李炳立, 朴洸, 徐超, 金鴻亮, 崔仁煥, 金東三, 金三, 高柄南, 金圭煥, 金泰熙, 林玄, 南百祐, 金箕壽, 申采浩, 李時悅, 高順欽, 李學洙, 李祐植, 金容煥, 李亨宰, 李元植, 李炳浩, 吳根榮.(이시열과 이학수는 같은 사람)⁷⁴⁾

단원 중에 청주 출신은 김태희·신백우·곽재기·민강·서초·김삼·남백우이고, 신평군은 진천 출신이다. 알려진 단원 중에 충북 출신이 8명인 반면에 경남 출신이 14명, 경북 출신이 15명을 차지하여 영남지방의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⁵⁾

대동청년단은 결성 초기에 구체적인 운동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활동을 위한 담당부서도 확인되지 않았고, 전체적이고 일관된 운동 방향도 설정하지도 못한 채 국권회복을 위한 계몽활동을 하였다. 이후 1910년 나라가 망하자, 단원들은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내에 남은 단원들 중 자산가들은 국외에 나가 있는 단원들과 연락하여 상업조직을 만들어 독립운동 자금지원을 하거나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어 활동하였고, 일부는 임시정부 활동에 참여하였다. 국외로

74) 이원식, 이병호, 김용환, 이향재는 신백우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오근영은 오재식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75) 권대웅, 2007, 「계몽운동계열의 독립운동」,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40~143쪽.

망명한 이들은 독립군으로 활동하거나 노동공제회를 거쳐 조선공산당에 참여한 이들도 있었다. 단원들은 각기 개인적으로 활동하거나 2~3명씩이 임시정부·의열단·독립군 등 다양한 단체에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일제에 검거되더라도 다른 단체의 활동으로 간주되어 광복 당시까지 일제에 발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⁷⁶⁾ 이들의 활동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대동청년단 활동 유형⁷⁷⁾

활 동 종 류	참 가 자
무장투쟁 (독립군)	신백우(초기), 이시열, 김동삼, 서세춘, 윤세복, 신팔균, 배천택.
임시정부	남형우, 윤현진, 김감, 민강, 최완, 김홍권, 최인환, 임현.
사회주의	장건상, 백광흠, 신백우(후기), 박중화, 서초, 고순흠.
학교설립·독립운동자금	안희제, 윤상태, 김홍량, 서상일, 신상태.
기타	신채호, 최윤동(임정, 독립군, 의열단)

단원 명단에서는 김태희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지만, 활동 유형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의 활동을 통해 활동 유형을 추정할 수 있다. 먼저, 김태희는 ‘학교설립과 독립운동자금’ 유형에 속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학교 설립 부분은 김태희가 1903년 청남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운동을 하였음을 전장에서 살펴보았다. 그 외 독립운동자금 지원은 김태희의 지인들의 증언이 있다. 그래서 그가 대동청년단 활동하던 시기에 토지대장을 조사해 보니, 당시의 1916년 9월 20일, 9월 29일에 금천동 밭과 개신동 밭을 2필지 매매하여 매매대금이 82원 88전 정도였고, 1918년 9월 30일에 남주동에 있는 대지 2필지

76) 김성민, 2019, 「백산 안희제의 민족운동」, 『내일을 여는 역사』 74,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306~307쪽.

77) 김성민, 2013, 「대동청년당의 결성과 활동」, 『백산 안희제의 생애와 민족운동』, 131쪽.

를 판매하여 494원 40전 이상의 매매금액이 있다. 김태희가 2~3년마다 2~3필지의 토지를 매매하였는데, 1916년에 2필지 90원 정도와 1918년에 2필지 매매하였다. 그중에 1918년에 매매한 금액은 500원 이상으로 쌀 100가마니 이상의 가격이다. 당시에 그가 활동했던 교회와 청남학교에서는 별다른 큰 행사가 없었고, 가정에서도 큰 이변은 없었다. 그런데, 1918년에 1월에 대동청년단에서 함께 활동한 신백우의 고향방문이 있었다. 당시 국내에 거주했던 단원들은 국외 단원들과 연락하여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는 내용이 있듯이 김태희의 1918년 토지 판매대금을 대동청년단의 독립운동자금 지원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청주 출신의 단원 신백우(1887~1962)는 활동유형에서 초기에 무장투쟁을 전개하였고, 후기에 사회주의 활동을 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는 1904년에 세운 산동학원에서 신채호·신규식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쳤고, 1905년 성균관에서 수학하였고, 측량을 배워 청주 탑동에서 측량학교 교사로 활동하였다. 탑동은 청남학교(남문로)와 가까운 거리이고, 김태희와 함께 대동청년단 활동을 한 것을 보면 잦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10년대에 만주로 망명하였다가 1918년 季氏 得雨의 혼사로 1월에 잠시 귀국하였다. 그는 청주인 고향에 방문하여 다음 해 3·1운동 참가 후 다시 상해로 돌아가서 활동하였다.⁷⁸⁾ 그가 상해로 돌아갈 때에 김태희의 독립운동자금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김태희의 대동청년단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태희는 1909년 대동청년단 단원이 되어 초기에는 국권회복을 위한 계몽운동으로 청남학교 및 청신여학교에서 교육운동을 전개하였고, 국권을 피탈당한 후 국내에 남아서 교육활동을 하며, 독립운동자금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78) 청주시 청주대학교 청주학연구원, 2018, 『청주의 독립지사』, 디자인필, 114~117쪽.

IV.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

1.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국민회 활동

1919년에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3월 1일에 서울·의주·신의주·선천·평양·안주·진남포·해주·원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청주에서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시작은 3월 2일로 충청지역 독립선언서 배포 책임자인 印宗益이 청주읍내에서 만세운동을 시도하려고 선언서 286매를 읍민들에게 배포하다가 일경에게 피체되어 아쉽게도 만세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⁷⁹⁾ 3월 9일에도 만세운동은 시도되었다. 서울 중앙학교 학생 申鎭浩가 「우리 2천만 동포에게 경고함」을 입수하여 청주에 내려왔다. 淸州公立農業學校 기숙사에서 학생 오석영·이수천·이요습·서상경·양재성 등과 함께 인쇄하다가 적발되어, 주모자 10명이 피체되었다.⁸⁰⁾ 따라서 이 또한 만세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사건에 관하여 『淸州 YWCA 50年史』에서는 “1919년 3월 9일 청주공립농업학교 학생 70여 명과 청남학교 교원 및 학생들이 함께 연합하여 만세운동을 벌이려 하였으나 사전에 이를 눈치 챈 일경의 단속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⁸¹⁾”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청주공립농업학교 학생들과 청남학교 학생·교사가 연합하여 만세운동을 기획하였으나 준비하는 과정 중 3월 9일 격문을 인쇄하다 중앙학교 학생과 청주농업학교 학생 10명이 피체가 되어 만세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만세운동에 청남학교 학생과 교사가 참여하려고 기획을 하였는데 당시 대동청년단 단원이었던 교감인 김태희와 교사인 곽재기가 함께 이끌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김태희의 또 다른 활동은 3월 23일 청주 시내 여러 곳에서 학생과 시민 수백 명이 만세시위를 하였다는 기록과 3월 31일 청주 시내에서 만세시위, 4월 2일 청주 읍내 시장에서 5백여 명이 격문을 부착

79) 金正明 編, 1967, 『朝鮮獨立運動』 1, 原書房, 359~361쪽.

80) 『매일신보』, 1919년 4월 14일자.

81) 청주기독교 청년회, 1999, 『淸州 YMCA 五十年史』, 대청정판사, 43쪽.

하고, 청주읍내 인근 야산에서 횃불만세시위에 김태희가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청주읍교회 청년들과 청주청년회 청년들의 증언⁸²⁾ 등에 의하면 김태희가 3·1운동을 이끌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청주 만세운동의 특징은 야간 횃불만세운동이다. 이 운동을 위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 호당 1~2명이 의무적으로 참가했으며, “산에 만세운동 하러 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⁸³⁾ 지금도 김태희가 다녔던 청주제일교회에서는 3·1절이면, 전 교인이 상당산성에 올라 야간 횃불만세운동을 기념하고 있다. 청주에서 7회의 집회에 5,000여 명이 참가하였다는 기록⁸⁴⁾이 있지만, 아쉽게도 일제의 기록이나 피감자수에 김태희의 이름은 없다. 그러나 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청년들의 증언과 그의 제자들, 교인들의 증언으로 보아 김태희가 3·1 만세운동과 야간 횃불만세운동에도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3.1운동이 일어난 후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었다. 임시정부가 조직될 때 임시정부는 국내에서의 일제 지방자치제를 거부하였고, 임시정부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내의 행정구획을 재설정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임시정부는 1919년 7월 10일 國務院令 제1호 『臨時聯通制』를 발표하였다. “정부와 국민 간에 氣脈을 相通하여 復國事業에 완성을 기하고 内外의 활동을 一致키 위해” 연통부를 설치한다고 하였다.⁸⁵⁾ 연통부는 행정단위별 설치된 행정관청의 이름을 통칭하는

82) 李昌秀, 1998, 『回想錄』, 계명사; 김현구, 2006, 『애국지사 일석 김태희』, 동해출판사. 이 책은 김태희의 손자 김현구가 김태희의 자료를 모아놓은 자료집이다. 김태희와 교회에서 함께 활동한 박경학이 1965년에 쓴 「고 김태희선생 항일투쟁」이 실려있고, 김현태가 1966년에 쓴 「김태희 선생의 민족투쟁」이 실려 있는데 이글에서 김태희의 3·1운동을 증언하고 있다; 조건상, 1961, 「愛國志士 金泰熙」, 『청주지』. “1919년 기미독립운동에는 눈부신 활동을 하였다.”; 전순동, 2004, 「일제강점기 청주청년회의 성립과 그 배경」, 『인문학지』 제28집,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9쪽. “1919년 3·1운동을 주도하였다.”

83) 박결순, 2013, 「3.1봉화만세운동과 조동식」, 『중원문화연구』 20, 중원문화연구소, 1~30쪽.

84) 박결순, 2012, 「충북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87쪽.

용어로 도에는 독판부, 부에는 부서, 군에는 군청, 면에는 면소라 하고 각 책임자를 도에는 독판, 부에는 부장, 군에는 군감, 면에는 면감을 임명하였다. 연통부의 주요 임무는 정부의 법령 및 공문의 傳布, 군인 및 군속의 징모, 재정단원 모집, 금전수합 및 납부, 공채업무이다.⁸⁶⁾ 하지만 핵심임무는 국내에서의 독립운동 자금의 모금과 조달이 주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김태희는 임시정부 충청북도 독판부 참사가 되어 활동하였다. 그가 독판부 참사로 활동했다는 내용이 임시정부 기록·신문·일제기록에 있다. 또한 김태희의 자세한 활동자료는 없지만 가족들과 지인들이 ‘독립자금을 보냈다’는 증언이 있다. 이는 연통부의 주요 업무 중에 금전수합 및 납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임시정부 연통제의 충청북도 독판부 직원명부이다.

〈표 5〉 대한민국임시정부 충청북도 독판부 직원명부⁸⁷⁾

군명	직명	성명	군명	직명	성명
도 독판 부	독판	이용	단양군	군감	원용갑 (일명 원하일)
	참사	이춘구 (일명 이광일)	제천군	군감	이의식 (일명 이희근)
	참사	정운기 (일명 정택)		참사	현성환 (일명 현신원)
	참사	김태희 (일명 이세기)		참의원	김상준 (일명 김용수)
	참사	김정현 (일명 김유성)	충주군	군감	박승익 (일명 박기병)
청주 군	군감	정운희 (일명 정우장)		참사	원용화 (일명 원경성)
괴산 군	군감	서정은 (일명 송진원)	보은군	군감	이석구(일명 이구)
	참의원	정원택 (일명 정규진)			

85) 한시준, 2000,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내 정보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15, 한국근현대사학회, 68쪽.

86) 한시준, 2000,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내 정보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15, 한국근현대사학회, 68쪽.

	조광순 (일명 조구섭)			
	조동일 (일명 조의식)			
	이재춘 (일명 이창영)			

연통부의 가장 핵심임무는 국내에서의 독립운동 자금의 모금과 조달이었다. 김태희가 독립운동자금을 보내기 위해 집에서도 양봉을 하였다는 가족들의 증언과 지인들의 글⁸⁸⁾이 있지만, 독립운동자금으로 얼마를 보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 무렵 토지 매매현황을 살펴보면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연통제가 만들어진 해와 발각되어 사라지기 전까지 1920년, 1921년에 매매한 땅이 있다. 1920년 12월에 매도한 땅은 금천동에 있는 논 736평(66원 24전)과, 1921년 7월에는 금천동에 있는 대지 126평(15원 12전)과 밭 642평(83원 46전)을 매도하였다. 이렇게 판매된 토지대금이 가족들의 증언과 지인의 기록으로 독립운동자금으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함께 활동을 한 박종헌의 증언에 의하면 “상해 임시정부와 연결하여 독립운동자금 조달 문제로 김태희, 박경학, 이동헌, 정규택, 김태근, 김광현 등이 청주 경찰서 유치장에서 근 일 개월간 갇혀서 심한 고문과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⁸⁹⁾라는 기록은 가능성을 높여준다.

1920년 6월 2일에 국내에서는 大韓國民會가 조직되었고, 9월 25일에 충북도회가 열려 회장으로 김태희가 선출되었다. 그리고 10월 2일에 전국 각 도회 대표 24명(강원도를 제외)이 평양에 집합하여 大韓國民總會를 조직하였는데, 이 조직은 독립 사업에 속하여 정부를 지원하고, 官民同化를 중심으로 민도를 개발·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이 조직에서는 『大韓民報』라는 주보를 발행하였고, 조직은 향촌

87) 在上海日本總領事館, 1932, 『朝鮮民族運動年鑑』, 168쪽.

88) 박경학, 1965, 「고 김태희선생 항일투쟁」, 『애국지사 일석 김태희』, 동해출판사, 253쪽.

89) 全淳東·崔東峻, 1999, 『淸州 YMCA 五十年史』, 44쪽.

회, 부군회, 도대회, 국민총회의 4부로 구성되었다. 각 회에서 회원수의 10대 1의 비율로 총회대표를 선출하기로 하였는데, 김태희가 평의원으로서 선출되었다.

<표 6> 大韓國民總會 임원 명단⁹⁰⁾

회장	朴寅寬
부회장	鄭德生
총무	朴承明
회계	林英爽, 李文柱
서기	柳萬燮, 金興鍵
평의원	高鑽翰, 宋炳祚, 梁錫垢, 蔡弼根, 金泰熙, 裴恩希, 金古昌, 鄭泰熙,
회원수	1만여 명.

김태희는 평의원으로 선출되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일조를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구체적인 활동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사업목적이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관민동화를 중심으로 민도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보내고, 교회와 지역사회, 학교에서 독립의식을 고취시킨 점이 민도를 개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청년회 활동

김태희는 청년회 활동으로 지역에서 청주청년회 활동과 교회에서 면려회 활동을 하였다. 두 활동은 1920년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활동은 실력양성을 위한 계몽운동이었다.

3·1운동의 실패로 국민들의 실망감은 너무도 크고 비참했지만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만이 일제 치하를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우선은 실력을 양성해서 민족정신을 함양시키는 일이 민족의 급무로 인식하였다. 게다가 일제의 통치방법이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90) 在上海日本總領事館, 1932, 『朝鮮民族運動年鑑,』 65쪽.

바뀌어, 제한적으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그러자 전국 각지에서 각종 단체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20년 6월 12일 민족운동에 뜻이 있는 지역유지 및 청년들 200여 명이 청주보통학교에 모여 발기총회⁹¹⁾를 갖고 1920년 6월 19일 창립 대회를 개최하여 청주청년회를 설립하였다.⁹²⁾ 김태희는 청주청년회 발기총회가 열렸을 당시 내빈으로 참석하여 축사를 할 만큼 단체설립에 적극적이었고, 1920년 부회장과 1921년 회장으로 선출되어⁹³⁾ 이 단체를 이끌어 갔다. 청주청년회의 조직을 살펴보면 청주청년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표 7〉 청주청년회 임원 명단⁹⁴⁾

회장	劉世冕
부회장	金泰熙
총무	金英植·金熙喆·金鍾元
평의원	李東鉉·金熙喆·閔大植·崔崙·白南斗·李重珏·林成綠·裴魯聖·李熙俊·洪鳳燮·康寬謙·金正賢·朴瑛東·申龍植·李重甲
서기	朴瑛東·鄭圭澤
서무부장	金英植
재무부장	金熙喆
교육부장	李重甲
체육부장	鄭容華
강연부장	金鍾元
교풍부장	鄭圭澤
간사	李熙俊·林成綠·李龍均·韓鐵鉉·金應三

이 임원들 중에 총무의 김영식⁹⁵⁾(서무부장 겸임)과 김종원(강연부장 겸임), 평의원의 이동현⁹⁶⁾과 김정현⁹⁷⁾, 간사의 김응삼⁹⁸⁾ 등은 청주읍

91) 『동아일보』, 1920년 6월 18일자.

92) 『동아일보』, 1920년 6월 24일자.

93) 『동아일보』, 1921년 10월 6일자.

94) 『동아일보』, 1920년 6월 24일자.

95) 청주읍교회 교인으로 청년회 발기인이다. 양관에서 민노아 선교사 가사를 돌보기도 하였다.

교회 청년회 출신이다. 이후의 임원에 있어서도 청주읍교회 출신이 활동하였다. 이형재⁹⁹⁾·이호재·이창재·임주순¹⁰⁰⁾·최창남 등이 김태희와 함께 청년회를 이끌어 간 것으로 보아, 민족주의 계열의 청년들이 초기에 청년회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김태희가 청년회를 이끌어 가면서 한 활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청주청년회의 활동은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청남학교를 지원¹⁰¹⁾하였으며, 민립대학 설립운동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체육활동도 권장했으며, 계몽적인 연극 공연도 기획하여 도내를 돌며 공연하였다.¹⁰²⁾ 그리고 동아일보 청주지사를 운영하였고, 망선루 보존 운동에도 앞장섰다.

토론회는 어떤 주제를 두고, 가편과 부편의 연사들이 먼저 연설을 하고 나서, 참석자들이 투표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22년 7월에 기독교청년회와 청주청년회가 연합하여 연합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주제는 ‘노동자가 인류사회의 주인공이나, 사역

96) 청주지역의 부호로 청주청년회와 사회사업에 헌신적이었다. 부인 배숙현도 청주읍교회 여전도회를 이끌어 왔다.

97) 1905년 충주제일교회를 세웠으며, 1919년 청주읍교회 장로가 되었다가 후에 목사가 되었다.

98) 마차공장을 경영하였고 청주읍교회 장로가 되었다.

99) 청주읍교회 교인으로 청년회 활동을 하였으며, 동생 이형균은 한약전재상을 경영하였다.

100) 연희전문 출신으로 음악에 재능이 있어 클라리넷 연주를 잘하였다. 동생 임옥길도 청년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01) 청주청년회에는 청남학교 교사들이 있어서 청남학교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청주청년회에서 도움을 주었다. 망선루의 상량문에 포함된 청주청년회 집행위원 25명 중 청남학교 교사는 김태희, 김종원, 이호재, 이창재, 최창남, 박제만(청남학교 사감봉사) 등이다.

102) 『동아일보』, 1921년 8월 29일자. “충주에 도착하여 21일 밤 공연을 하였고, 22일 피산으로 출발하였다. 연극의 내용은 의리적이고 권선징악이라 관객들이 흥미로워했다.”는 기사가 있다. 이 연극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서를 하나로 모으려 하였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변절이 아닌 의리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제는 3·1운동 이후 변절자인 친일파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던 시기일 때 연극의 주제가 의리적이고, 권선징악이라는 점은 청년회 활동이 다분히 항일적임을 알 수 있다.

자이나'이었는데 청주청년회의 대표로 김태희와 정규택이 연사로 나와서 노동자는 인류사회의 주인공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기독교청년회 대표로는 백영기와 이근태가 나와 노동자가 사역자라는 주장을 설파하였다.¹⁰³⁾ 여기서 김태희가 연사로 강연하였는데, 현재 김태희의 글은 남겨진 것이 거의 없지만, 당시에 그는 청남학교 교감과 청년회 회장, 동아일보 지국장 등을 역임하다 보니 강연이나 축사, 권면사 등 강연을 많이 한 것이 확인된다. 그의 제자 이창수는 김태희의 강연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김태희 선생님은 강단에 서면 태연자약하시나 연설을 시작하면 굳어지신다.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은 속을 꿰뚫는 말씀을 하여 상대방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 주며 고개를 숙이게 한다. 자세도 그러하러니와 확고부동한 연사로 끝을 맺으신다.¹⁰⁴⁾

청주청년회는 민립대학 설립운동에도 동참하였다. 당시의 교육자는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일본인이거나 혹은 거의 일본인에 동화된 자들에 의해 독점되자, 조선인을 위한 조선인 교육자 양성의 필요가 절실해져 최고의 교육기관인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¹⁰⁵⁾ 처음 시작은 1920년 6월 23일 舊韓國 참정대신 한규설, 이상재, 윤치호 등 민족운동가 100여 명이 재단법인 朝鮮教育會 설립발기회를 개최하여 민립종합대학 설립을 결의하였다.¹⁰⁶⁾ 이에 위기를 느낀 총독부는 1920년 12월 23일에 임시교육조사위원회규정을 발표하였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령 개정을 서둘렀다. 1921년 1월 10일에 개최된 제 1회 임시교육위원회에서 제출된 學制改正案 요령은 '조선인으로서 점

103) 『동아일보』, 1922년 7월 16일자.

104) 李昌秀, 1998, 『回想錄』, 계명사, 277쪽.

105) 이명화, 1991, 「민립대학 설립운동의 배경과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37쪽.

106) 『매일신보』, 1922년 12월 9일자.

차 완전한 일본국민이 되도록 하고, 의연히 학교에서 국어(日語) 敎授를 중시하는 것이 大方針'이었다. 이는 내선일체에 따른 충량한 신민을 키우려는 것이었다. 이에 조선청년회연합회·조선교육회의 인사들과 지방의 유지들은 敎育改善會를 조직하여 일제에 의한 무조건적인 맹종주의 동화敎育을 반대하였고, 고유한 민족성을 존중하는 敎育실시를 주장하는 敎育改善建議案을 제출하였다. 이 때 김태희는 조선청년회연합회 議事로 건의안의 제출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¹⁰⁷⁾

1921년 5월 7일에 개최된 제2회 조사위원회에서 '專門學校, 大學 豫科와 大學은 內地 制度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¹⁰⁸⁾ 그리고 1922년 2월 6일 조선敎育령이 발표되었다. '專門敎育은 專門學校令에, 大學敎育과 그 豫備敎育은 大學令에 의하며, 단 이들 勅令 중 文部大臣의 職務는 朝鮮總督이 이를 行한다. 專門學校의 設立과 大學 豫科의 敎員資格에 關하여는 朝鮮總督이 정한 바에 의한다.'고 하여 대학 설립의 길을 열어놓았지만, 조선에서는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자, 각 지방의 언론기관과 지방유지들이 성원하여 1923년 3월 29일 경성 종로 중앙기독교 청년회관에서 민립대학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발기인으로 선정된 1170명 중 462명이 참석하였고, 청주에서는 민영은, 김태희, 정규택, 김원근, 나인자가 선정되어 참석하였다.¹⁰⁹⁾ 이 중 청주청년회 회원은 김태희와 정규택이었다.

민립종합대학설립의 중앙부 조직에 참여한 자들은 당대 敎育계·언론계·종교계·실업계의 諸人士들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이미 식민지관료로 등용된 자, 타협주의로 기울어진 자, 1920년대 전반의 실력양성운동이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문화운동 차원에 머문 자, 사회주의자로 전환해 간 자 등 다양한 주의의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반면에 지방부는 중앙부의 지도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들이 대학설립에 필요한 자금모집을 전개할 때, 지방부에서는 선전 강연이나 특

107) 『매일신보』, 1921년 5월 6일자. “敎育개선킨의안”

108) 朝鮮總督府, 1921, 『臨時敎育調査委員會決意要項』 5조.

109) 『동아일보』, 1923년 4월 1일자.

별활동을 전개하기보다는 지방유지와 지방 관료층에 크게 의존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사주를 받은 지방유지와 관리들은 실제 모금운동에 비협조적이었다. 게다가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나자, 일제는 일체의 집회도 허용하지 않았고, 지방유지들은 震災救濟會를 조직해 의연금을 모금하였다. 그러다 보니 민립종합대학설립 지방부의 모금운동은 순조로이 진행되지 못해 실패하고 말았다. 더군다나 청주에서는 지방부가 조직되지도 못했다.¹¹⁰⁾

청주청년회의 활동 중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망선루¹¹¹⁾ 보존운동이다. 그 당시 일제는 시구개정사업을 펴면서 청주경찰서 내 무덕전을 신축한다는 빌미로 망선루를 헐기로 하였고, 그것을 공개입찰하여 매각하려 하였다. 그러자 청주청년회 회장으로 있던 김태희가 이 소식을 먼저 접하였고, 청주에서 오래된 문화재를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청주청년회 회의를 열어 망선루 입찰을 받았다. 그 후 청주읍교회 내로 이전·복원하여, 청남학교 교사와 청년회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입찰금은 지역유지의 후원금과 청년회 11명이 1인당 150원씩 균등 각출해서 합하여 2,000원에 이루어졌는데 그 해가 1922년이였다.¹¹²⁾ 입찰 후 그 자재를 서문동 민영은의 밭에 쌓아두었다.¹¹³⁾

이 시기에 김태희의 토지대장을 살펴보니, 1922년에 금천동 밭을 3건이나 팔았다. 2월 3일 판매한 밭 719평(71원 90전)과 3월 6일에 금천동 밭 760평(76원)이다. 비슷한 시기인 3월 23일에 판매한 금천동 밭 137평은 조선총독부에서 수용한 것이기에 망선루 입찰비용으로 매도할 가능성은 낮다. 1922년에 2건의 토지 매매대금 147원 90전은 망선루 입찰비용 -청년회원 11명이 각 개인당 150원씩 각출했다는 기록

110) 이명화, 1991, 「민립대학 설립운동의 배경과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40~58쪽.

111) 망선루는 고려시대의 관아건물로 청주 객관의 동쪽에 위치한 누각이다. 그 건물은 지금의 CGV 북문 영화관이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는 청주면사무소, 청주여자공립보통학교 건물로 사용되었다.

112) 李明求, 1971, 『자서전』, 상록출판사, 255~256쪽.

113) 조건상, 1961, 「애국지사 김태희」, 『청주시지』, 315쪽.

-과거의 일치함으로 이 매매대금은 입찰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 후 이전복원비 1700원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김태희는 소열도 선교사와 함태영 목사와 상의하였다. 먼저, 청주 선교부에서 700원을 기부해 주었고, 그 외는 교회와 지역사회의 모금운동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당시 김태희는 동아일보 청주지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를 신문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렸고, 지역사회에서는 많은 이들이 일제로부터 우리의 문화재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모금운동에 참여하여 500원을 모금할 수 있었다. 나머지 500원은 함태영 목사가 서울에 가서 모금을 해왔다.¹¹⁴⁾ 당시 지역사회와 국민들이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성금을 내주었고, 그 성금으로 망선루를 문화재로 지킬 수 있었다.

1924년 1월 28일에 상량식이 올려졌다. 상량에는 기존에 들어있던 상량문 2장과 ‘望仙樓의 移建原因과 略史文’ 1장, ‘청주청년회 집행위원 및 청남학교 직원명부’ 1장 등 총 4장을 넣었다. 그 중 「망선루의 이 건원인과 약사문」은 김태희가 썼는데 다음과 같다.

생각하건대 우리 청주는 三韓古郡이고 三南雄州이다. 인물의 번영과 산천의 수려는 호남 영남의 관문이요 명승이 빼어난 곳이다. 淸州 府內에 3대 古蹟이 있으니 하나는 南石橋요 또 하나는 望仙樓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鐵幢竿이니 남석교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 원년 갑자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망선루의 옛 이름은 聚景樓이니 남석교와 同年代에 營建된 것이며 철당간은 고려 광종 峻豐 3년 壬戌年에 처음 세워진 것이다. 이 3대 건축물의 宏傑하고 雄大함은 先祖의 예술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며 수리하여 본 모습대로 계승하는 것은 古人의 뜻을 잘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오호라 이 樓가 삼십삼 갑자의 장구한 세월을 보존하여 지켜오다가 불행하게도 임술년 8월경에 市區改正으로 인하여 헐리

114) 全淳東·崔東峻, 1999, 「日帝期 淸州地方의 民族教育運動-淸南學校를 중심으로」, 『중원문화연구』 2·3, 중원문화연구소, 106~107쪽.

어 견어치워지게 되니 우리 후인들은 탄식의 긴 한숨이 절로 나고 한 움큼의 피눈물이 왈칵 흘러나움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을 慨歎한 청주청년회와 사립 청남학교에서는 힘을 합쳐 移建하게 되었는데 옮겨 지음에 原形을 그대로 살리는 것은 옛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先祖들이 남긴 遺物을 영원히 存續하게 하며 育英의 장소를 만들어 후손의 昌達을 장구히 꾀하려는 것이다.

청주읍지에 의거하면 이 건물은 客館 동쪽에 있었으며 옛 이름은 취경루다. 至正 辛丑년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하여 안동으로부터 이곳에 이주하여 수개월 머물렀다. 홍건적이 평정되자 이곳에서 文科 및 監試를 실시한다는 방문을 전국에 발하였는데 청주에서는 후인들이 그 방문을 이곳에 내 걸었다. 오랫동안 누차 훼손되어 오던 것을 천순 신미년에 지방관 목사 이백상이 중건하고 한명회가 다시 편액을 고쳐 망선루라 하였다고 운운하고 있다.

조선 현종 8년 정미년 4월 1일에 목사 李暹이 다시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단군기원 사천이백오십칠년 갑자 일월 이십팔일
구주강생 일천구백이십사년 일월 이십팔일
월성 후인 金泰熙 적고 파평 후인 尹弘植 쓰다.

김태희가 쓴 「망선루의 이건원인과 약사문」을 살펴보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부심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 것을 얼마나 지키고 싶어 하는지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先祖들이 남긴 遺物을 영원히 存續하게 하며, 育英의 장소를 만들어 후손의 昌達을 장구히 꾀하려 한다.”는 표현을 통해 우리의 것을 영원히 존속시키고, 그곳에서 후손들을 교육시켜 창달을 장구히 꾀하고 싶은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남긴 글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이글을 통해 우리의 것에 대한 그의 생각과 育英, 후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 소중한 자료가 된다.

망선루는 1924년에 준공하여 청남학교 학교 건물로 사용하였다. 한편 1층 북쪽으로는 입구를 따로 내어 청년회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 망선루는 청남학교뿐 아니라 후에 청신야학, 청주성경학원, 세광중학교, 세광고등학교, 청신고등국민학교, 상당유치원, YMCA회관, YWCA회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충북지부, 청주삼각소년단(대한 보이스카운트 전신)으로 사용되었다. 김태희는 헐릴 위기에 처한 청주의 문화재를 지역민들과 함께 모금운동을 통해 보존하여 청주의 문화·교육의 산실로 만들었던 것이다.

청주청년회 활동 중에 하나는 『동아일보』,¹¹⁵⁾ 청주지국을 운영하였다.¹¹⁶⁾ 1921년 4월 13일부터 『동아일보』, 청주지국은 청주청년회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지국장의 김태희부터 총무 김정현, 기자 임성록, 사무원 박영동에 이르기까지 모두 청주청년회 회원이었고, 청주청년회 총회의 순서를 보면 『동아일보』, 지국의 상황보고가 있다.¹¹⁷⁾ 이를 통해 청주청년회에서 『동아일보』, 지국을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태희는 전국 청년연합회에서도 활동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청년회 단체들이 설립되자 『동아일보』,가 전국에 있는 청년회의 연합을 제창하였다. 서울의 각계 인사 53인이 모여 발기하였고, 1920년 12월 2일에 113단체가 모여 朝鮮靑年會聯合會를 결성하였다. 충북에서는 청주청년회와 괴산청년회가 참여하였으며, 청주의 劉世晔는 議事長으로 김태희는 議事로 선임되어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조선청년연합회를 전국적인 민족운동단체로 인식하여¹¹⁸⁾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115) 『東亞日報社史』,에 따르면 초창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지국은 단순히 신문의 판매만을 목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고, 지방의 애국적 유력인사들이 참여하여 그 지방의 신문판매와 취재를 아울러 담당하였다고 한다. 신문사의 지국은 민족운동의 지방조직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신문사 지국을 운영하는 사람은 단지 지방의 유력인사에 그치지 않고 그 지방 민족운동을 선도하는 인물이다.

116) 『동아일보』, 4월 13일·15일자; 지국장 김태희, 총무 김정현, 기자 임성록, 사무원 박영동.

117) 『동아일보』, 1921년 5월 24일자; 『동아일보』, 1921년 10월 6일자.

그런데 1920년대 초에 신사상이 유입되자, 충북지역에도 아나키즘, 마르크스·레닌주의 등 사회주의가 청년층과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입으로 사회주의를 말하지 아니하면 시대에 뒤진 청년’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확산되었다.¹¹⁹⁾ 1923년 서울청년회 및 20여 개의 사회주의 청년단체는 全朝鮮靑年黨 대회를 개최하였고, 1924년 4월 5일에 서울청년회가 주도하여 조선노동대회를 개최하였다. 청주청년회의 서정기도 여기에 참석하였다.¹²⁰⁾ 1924년 4월 21일 朝鮮靑年總同盟은 233개 단체 대표자들과 700여 명의 방청객이 모여 창립하였다. 조선청년총동맹은 전조선청년당대회 및 新興靑年同盟과 통합하여 창립한 단체로 사회주의자들이 주가 되었다. 조선청년총동맹은 기존의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한 청년운동을 사회주의운동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김대회를 비롯해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청년들이 이끌어간 청주청년회에서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선청년총동맹에 가입을 하기도 하였다. 1925년 2월 20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강령과 규칙을 개정하고 임원을 개선하였다. 『동아일보』에 이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청주청년회 안에서 내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²¹⁾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차례 총회를 개최하였고, 시대에 순응할 문화를 향상시킨다는 강령으로 개정하였고, 새임원을 개선하였다. 이후 1925년 4월 또다시 서울과가 중심이 되어 전국의 사회운동자들을 모아 전국적 사상단체로 朝鮮社會運動者同盟을 조직하려 하자, 청주청년회에서는 박달현, 서정기가 창립대회에 참가하였다.¹²²⁾

그런데 1925년 6월 4일 『매일신보』에 뜻밖의 소식이 실렸다. “『

118) 장승순, 2015, 「1920년대 충북지역 청년회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 『중원문화연구』, 23~24쪽.

119) 김경일, 1992,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 비평사, 395쪽.

120) 장승순, 2015, 「1920년대 충북지역 청년회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 『중원문화연구』 23~27쪽.

121) 『동아일보』, 1925년 3월 3일자.

122) 장승순, 2015, 「1920년대 충북지역 청년회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 『중원문화연구』, 23~29쪽.

동아일보』, 지국장 김태희가 ‘망선루 기부금 횡령사건’으로 청주경찰서에 인치되었는데 취조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판명되어 4일 전에 무사방면 되었다”라는 기사이다. 청주청년회는 이념적으로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동아일보』, 지사운영 만큼은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하고 있었지만 이 기사 이후 이것마저도 물러나게 되었다. 1925년 6월 29일 청주청년회는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으로 ‘『동아일보』의 경영자 변경에 따른 본회의 조치’에 대해 토의하였다.¹²³⁾ 이후 김태희는 『동아일보』, 지국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청년회 회원인 김철환의 동생. 김동환이 맡게 되었다. 이후 청년청년회에서 김태희의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일제는 이 사건을 통해 그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어 대외적인 활동을 막으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희가 지역사회에서 청주청년회 활동을 할 때, 교회에서는 교인들 대상으로 면려회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김태희는 밀러 선교사와 1900년에 만나 인연을 맺은 후 청주읍교회의 창립신도가 되었다. 그 후 1909년에는 청주 기독교청년회 초대 회장으로 청년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였고¹²⁴⁾, 1919년에는 청주읍교회 내에서 면려회 활동¹²⁵⁾으로 청주 전도부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¹²⁶⁾ 1920년에는 장로로 장립되었고¹²⁷⁾, 1921년에는 제 20회 경기충청노회가 서울 동숭동교회에서 개최

123) 『동아일보』, 1925년 7월 2일자.

124) 全淳東·崔東峻, 2003, 「독립운동과 일석 김태희」, 『忠北基督教百年史』, 122쪽.

125) 면려회 운동(Christian Endeavor Movement)은 1881년 미국 메인주 포틀랜드의 윌리스턴 회중교회 목사 클라크가 창설한 단체로 교회와 국가의 미래가 젊은이들에게 있음을 확신하였고, 그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청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토의하고, 활동하는 모임이었다. 이 모임이 캐나다를 거쳐 영국을 통해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일본, 중국, 인도 등 동양권으로 파급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1899년에 처음 북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 들어왔다. 초창기 활동으로는 기도와 전도가 주였지만, 일제 치하 때는 특수한 여건상 사회 계몽운동으로 전개해 나갔다.

126) 「제15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록」 1919년 12월 13일자.

127) 「청주제일교회 연혁지」.

될 때 충청지역 총회대표로 선출될¹²⁸⁾ 정도로 교인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청주읍교회는 1919년에 면려회 활동을 처음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¹²⁹⁾ 주요활동으로 야학을 운영하였고, 강연회와 토론회, 웅변대회, 연극공연, 금주·금연운동, 물산장려운동 등을 전개해 나갔다.¹³⁰⁾

청주읍교회의 야학은 1919년에 처음 실시되었다.¹³¹⁾ 이후 1923년 청남학교 교사와 여자기독교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부녀자들 대상으로 야학을 만들어서 이름을 청신야학이라 하였다. 교육장소는 청남학교 교실이 된 망선루에서 야간에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기간은 추수가 끝나고 시작하여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루어졌다. 초창기 학생은 15명이었고, 차차 알려지게 되자 1927년에는 5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¹³²⁾ 이 청신야학이 부녀자들 대상으로만 이루어지자, 일반 남녀를 위한 야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28년에는 청주기독교청년회와 여자기독교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청주야학회’를 개설하였다. 그 당시 김태희는 청남학교도 그만두고 신간회 활동과 교회생활만 하고 있었는데, 장로인 그가 야학운영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1920년 교회의 장로가 되었는데, 장로교에서 목사는 설교를 담당하고, 장로들이 교회를 운영한다. 교회의 모든 행사는 장로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더군다나 청주읍교회는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설립된 교회로, 김태희는 그 청년회의 초대 회장을 맡을 정도였고, 장로였기에 그의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면려회 활동으로 토론회, 웅변대회도 개최하였다. 1921년 12월 5일 기독교청년회 주관으로 基督青年通常會를 열어 老年傳道會와 연합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주제는 ‘사업성취는 근면이나 금전이나를 두고 可

128) 「경기충청노회 제20회 회의록」 1921년 6월 21일자.

129) 「제15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록」 1919년 12월 13일자.

130) 忠北基督教宣敎100周年記念事業會, 2002, 『忠北基督教百年史』, 동해출판사, 230쪽.

131) 「제15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록」 1919년 6월 26일자.

132) 『기독신보』, 1927년 1월 5일자.

否討論會를 하였다. 여기에 『동아일보』, 지국장인 김태희가 토론에 대한 비평을 하였다¹³³⁾. 주제를 살펴보면 물질보다는 근면인 생활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22년 2월 2일에도 기독교청년회에서 ‘우리의 진보는 이상이나 실행이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도 김태희가 『동아일보』, 지국장으로 참석하여 토론에 대한 비평을 하였다.¹³⁴⁾ 같은 해 7월에는 청주청년회와 연합토론회에서 김태희가 연사로 나와 노동자는 인류사회의 주인공이라는 주장을 하였다고 청주청년회활동에서 밝혔다. 1925년에는 忠北道 査經會를 이용하여 懸賞雄辯大會를 청남학교에서 개최하였는데, 웅변대회의 심판원이 김태희, 김정현, 이호재였고, 수상자 중 일등에는 이창재, 이등에는 김기택, 삼등에는 신근우가 수상했다는 기사가 『기독신보』에 실렸다.¹³⁵⁾ 이를 통해 김태희는 강연회나 토론회, 웅변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개인적인 수양과 교양함양, 인격완성을 고취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면려회에서는 금주·금연·물산장려운동도 전개하였다. 물산장려운동은 조선청년연합회의 주요사업이었지만, 조선청년총동맹의 반대로 청주청년회에서도 외면을 받아 이 운동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민족주의 청년들이 주축인 청주읍교회에서는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우리 민족의 산업진흥을 꾀하는 것으로 먼저 강연을 통해 교인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시가지를 돌며 ‘전단지’를 만들어 지역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¹³⁶⁾ 이 운동은 교인대상을 넘어 청주읍민 전체에게 전개한 활동이었다.

청주읍교회의 청년들은 김태희를 비롯해 민족의식이 강하여 면려회 활동을 추진하면서 실력향상·교양보급·인격향상 등 계몽운동 방향으로 이끌어 갔지만, 세계적인 면려회는 확고한 신앙을 우위에 두고 진행되었다. 경북의 안대선이 세계면려회 일환으로 조선의 면려회를 수행하

133) 『동아일보』, 1921년 12월 13일자.

134) 『동아일보』, 1922년 2월 11일자.

135) 『기독신보』, 1925년 2월 4일자.

136) 『기독신보』, 1927년 12월 14일자.

기 위해 기독교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민족청년들이 주축이 된 청주읍교회에서는 조선연합회를 가입하지 않았다.¹³⁷⁾

김태희는 면려회의 활동을 추진하면서 교인들 대상으로 야학을 통해 실력양성을 도모하였고, 토론회와 강연회를 통해 인격수양 및 교양 함양을 고취하고자 하였으며, 금주·금연·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민족의 산업진흥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 면려회 활동은 종교적인 활동이기보다는 교인 대상의 사회 계몽운동이었다.

3. 신간회 활동

신간회는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 세력이 1927년에 연합하여 설립하였지만, 아쉽게도 이념의 벽을 넘지 못하고 1931년에 해소된 단체이다. 설립 초기에는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하다 복대표 이후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하였다. 그러나 민중대회 사건으로 사회주의 계열이 검거되면서 다시 민족주의 계열이 이끌어 가다가 해소되었다. 각 지회는 중앙에 창립 승인을 받고 조직되어서 중앙의 통제를 받아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태희는 신간회 청주지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27년 11월경부터 청주지회 준비회가 조직되어 회원 모집을 하면서 청주지회 설립에 노력하였다. 12월 13일 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18일 오후 8시 『조선일보』, 청주지국에서 설치 준비회를 개최하였다.¹³⁸⁾ 청주지회의 설립대회는 1927년 12월 22일 오전 11시 청주 櫻座劇場에서 임시의장 김태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대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김태희가 간사로 추대되었다. 이때 선출된 임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137) 김덕, 2003, 「1920~30년대 기독교청년면려회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18, 한국기독교연구소, 210~212쪽.

138) 『조선일보』, 1927년 12월 20일자; 『조선일보』, 1927년 12월 22일자.

<표 8> 청주 신간회 간부 명단¹³⁹⁾

회장	孫顯秀
부회장	鄭淳邦
서무부	金析·許炆
재무부	申高休·申承浩
정치부	金鍾泰·田命植
조사연구부	申英雨·崔致煥
조직선전부	尹泰容·具然達
간사	崔昶楠·黃虎淵·李秉植·朴恒圭·金泰熙·李熙東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간회 청주지회는 당시 청년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중심이었다. 지역 유지 출신인 손현수와 정순방이 회장,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신영우, 김종태, 신선희, 김태희, 윤태용, 최창남 등도 간사로 선출되어 지회를 이끌어 갔다.

설립대회가 끝난 후 즉석에서 제1회 정기대회를 개최하여 아래의 사항을 토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일, 토의사항 : 가. 회관문제의 건
 나. 회원증모의 건
 다. 회원 교양문제의 건
 라. 도내 일반 정세 조사 건
 마. 도내 각군 지회설립 촉진 건
 바. 청년문제의 건
 사. 농민문제의 건
 아. 재만동포옹호문제의 건(금지)

일, 본부대회에 출석할 대표회원 선거의 건.

일, 본부대회에 제출할 건의안 작성의 건.

일, 기타사항(생략)

139) 『동아일보』, 1927년 12월 25일자.

이처럼 이 토의사항을 살펴보면, 그 내용에서 도내정세라든지, 청년 문제, 농민문제, 재만동포옹호문제 등 다루는 안건이 도내문제에서 재만동포문제까지 폭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만동포옹호문제는 청주지회가 창간준비를 할 무렵 12월 3일에 불거진 사태였다. 신간회 본부에서는 ‘재만동포옹호동맹’을 창립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각계 사회단체의 궐기를 호소하였다. 전국의 70여개 신간회 지회와 청주지회에서도 재만동포옹호동맹을 결성하였다. 본부는 만주에 인원을 파견하여 중국에 귀화하지 않는 조선인을 무조건 방축하려는 사태를 길림성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그 결과 6개월 이내에 중국 국적으로 귀화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그 이전의 구축령은 취소하는 것으로 하였다. 각 지회에서도 재만동포를 위한 항의문을 길림성으로 보내고, 재만동포 의연금을 모아 보내기로 하였다.¹⁴⁰⁾ 청주지회는 창립시에 안건으로 항의문과 의연금 모금에 대해 토의하고자 하였으나, 배석한 일경들 때문에 논의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주지회는 재만동포옹호동맹을 결성하여 항의문과 의연금을 보냈다.

청주지회는 1927년 12월 23일에 제1회 간사회를 열고, 당시 청주교보 吉野(요시노) 교장의 민족차별 발언으로 인해 청주교보생의 동맹휴교 사태와 관련하여 토론하였고, 다음과 같은 항의문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다.

일, 조선민족에 대하여 모욕적 언동을 감히 한 요시노 교장은 조선교육계에서 떠나는 동시에 일반에게 사죄할 것.

일, 금번 동맹휴학생에 대한 불법적인 처분은 취소할 것.

일, 교내에서 조선인 교원에 대한 모욕적인 압력을 철폐하는 동시에 조선인 교원을 다수 채용할 것.

일, 교장의 모욕으로 인하여 사직한 朱炳乾씨에 대하여 사죄할 것.

일, 關本 교유가 『文教朝鮮』, 9월호에 게재한 조선민족에

140) 신용하, 2007, 『신간회의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57~165쪽.

대한 모욕 기사를 취소하고 일반에게 사죄하는 동시에 조선
교육계를 떠날 것.

토의에서 결의한 내용은 다분히 항일적이다. 일본인의 부적절한 언
사, 한국학생에 대한 불법적인 처분, 한국인의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이 한국인으로서 민족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항일운
동 성격을 강하게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청주고보에 제1차
간사회에서 결의한 항의문을 보냈고, 대표위원을 학교에 파견하려 하
였었는데, 학교 당국에서 동맹휴학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파견을 금지
했다고 제2차 간사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¹⁴¹⁾

또한 김태희는 강연회의 연사로도 활동하였다. 1928년 3월 17일에
망선루에서 춘계대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경찰관 경계하에 총 5명의 연
사가 강연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다.¹⁴²⁾

최홍모 : 우리는 왜 태어났나?

한치유 : 유교의 근본 뜻

황호연 : 변태성 신경질의 사회를 논함.

신영우 : 사회의 구성관계와 자각.

김태희 : 진화냐 퇴화냐?

강연회가 끝난 3월 19일 오후 5시경에, 충북경찰서는 돌연 대수사
활동을 개시하였다. 신간회 지회사무실과 조선일보 청주지국까지 수사
하여 신간회 서류 및 문서일체를 다 압수하여 갔다. 연사인 김태희,
신영우의 가택을 수색하였고, 지회장 이하 5~6명 간부들을 호출하여
20일 3시까지 취조하였다. 이후 김태희를 피의자로 검속하였지만, 간
부들은 귀가조치 하였다.¹⁴³⁾ 이유는 김태희의 강연이 치안에 방해된
점이 많았으며, 치안법 제7조에 의해 검속하였다가 3월 22일에 석방하

141) 『조선일보』, 1927년 1월 3일자; 1927년 12월 29일에 2차 간사회.

142) 『매일신보』, 1928년 3월 26일자.

143) 『조선일보』, 1928년 3월 23일자.

었다.¹⁴⁴⁾ 이를 통해 보면, 김태희가 신간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었고, 그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일제의 탄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굴하지 않고 1928년 12월 22일에는 신간회 만 1주년 기념 정기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회장으로 김태희, 부회장으로 이석영 등이 선출되었다.¹⁴⁵⁾ 1929년 2월 5일에 청주지회는 총무간사회를 열어 원산노동연맹에 격려 전보문을 발송하기로 결의하였고, 원산총파업을 지지 성원하였다.¹⁴⁶⁾ 원산총파업 문제는 1929년 1월 함경남도 원산에서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일으키자, 신간회 중앙본부에서도 변호사를 파견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였으며, 인천으로부터 온 일제의 國粹會員의 퇴거를 요구하다가 간부들이 체포당하였다. 전국 각지의 신간회 지회들은 원산노동자들에게 전보를 보내어 원산총파업을 성원하였는데,¹⁴⁷⁾ 청주지회에서도 연계하여 전보문을 보냈고, 지지 성원을 하였다.

1929년 8월 3일에 임시대회를 망선루에서 개최하였는데 결의된 사항을 살펴보면 會勢 확장의 건, 본부건의안 작성, 간부선거 (집행위원장 김태희, 집행위원 윤태용, 황호연, 김동환 외 칠인) 등의 사항이었다.¹⁴⁸⁾ 이 대회에서 집행위원장으로 김태희가 선출되었다. 이는 1929년 6월 전국복대표 전체대행대회가 열려 전체대행체제로 중앙조직이 변화되어 종래의 간사제에서 집행위원제로 직제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임원개선을 하여 허헌을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사회주의자들이 중앙본부의 간부로 대거 진출하였다.¹⁴⁹⁾ 그러나 청주지회는 김태희가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임원들도 창립 때 선임된 임원

144) 『조선일보』, 1928년 3월 30일자.

145) 『동아일보』, 1928년 12월 24일자.

146) 『조선일보』, 1929년 2월 11일자.

147) 신용하, 2007, 『신간회의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73~174쪽.

148) 『동아일보』, 1929년 8월 6일자.

149) 신용하, 2007, 『신간회의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69~73쪽.

이 거의 다시 선출되어 변화가 없었다.

새롭게 선출된 허헌 집행위원장체제는 1929년 11월 3일에 발생한 광주학생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민중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신간회 간부들이 주도한 광주학생운동을 각 지회와 청년총동맹, 근우회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사전에 관계자들이 검거되어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¹⁵⁰⁾ 허헌 집행위원장체제와 지향점이 달랐던 청주지회에서는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없다.

민중대회사건으로 신간회 회원 44명이 검거되어 허헌 집행위원장체제는 와해되었고, 김병노 체제가 형성되었다. 그의 온건화·개량화 노선은 신간회를 해소론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¹⁵¹⁾

신간회 청주지회에 관한 제일 마지막 신문보도는 1930년 9월 7일 활동이다. 신간회 청주지회 집행위원회가 사무소에서 지회장 김태희의 사회로 개회하였다. 사임하는 위원 신철휴, 이회동 대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고, 보선된 위원으로는 집행위원이 이종억이었고, 감사위원이 김동환이었다.¹⁵²⁾ 새로 선출된 감사위원 김동환도 청년회에서 함께 활동한 청년이었다. 이후 신문에 보도되는 신간회 청주지회의 활동은 없다가 1931년을 신간회는 아쉽게도 해소되고 말았다.

신간회 청주지회는 청주지역의 현안 문제인 청주고보문제 뿐만 아니라 만주동포옹호문제·원산총파업을 지지성원하는 등 민족운동에 앞장섰지만, 너무나 아쉽게도 이념의 벽을 넘지 못하고 해소되었다. 김태희는 청주지회에서 처음에는 간사로서 활동하다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후에는 집행위원장이 되어 신간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150) 이균영, 1993,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544쪽.

151) 이균영, 1993,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548~549쪽.

152) 『동아일보』, 1930년 9월 10일자.

V. 맺음말

김태희의 활동을 정리해 보면, 첫째, 그는 학생들에게 민족교육을 하는 교육가였다. 그는 1903년 김원배·방홍근과 함께 광남학교를 설립한 후 청남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학생들에게 민족교육 운동에 앞장섰고, 1907년에는 청신여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교육하였다. 또한 그는 1923년에 ‘청신야학’을 열어서 부녀자에게도 신학문을 교육하였고, 1928년에는 청주기독교청년회와 여자기독교청년회 합동으로 ‘청주야학회’를 개설하여 학생들을 교육하였다. 그리고 그는 1933년에 청주를 떠나 신탄진에 가서도 야학을 운영하며 교육에 앞장섰다. 그 외에도 그는 교육에 관련된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그는 기호흥학회의 회원이었고, 교육진전기성회의 회원으로 교육기관 확장을 위해 앞장섰으며, 민립대학 설립운동에도 참여하였다. 이렇듯 그가 교육가로서 학생들에게 교육하려는 것이 신학문뿐만 아니라 민족의식의 고취와 우리 것의 소중함과 애국사상이었다. 그것은 독립을 위해 학생들에게 반드시 고취시켜야 할 교육이었고, 그 교육을 통해 후손의 창달을 장구히 꾀하고자 한 것이었다.

둘째, 그는 당시의 청년들과 교인들을 계몽시켜 나라를 되찾으려는 계몽운동가였다. 그는 청주청년회에서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지성계발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또한 3·1운동 이후, 일제가 친일파를 양성하던 시기에 그는 주제가 의리적이고 권선징악의 연극공연을 기획하여 민중들에게 신의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게다가 그는 청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망선루가 시구개정사업으로 헐리게 되자, 망선루 보존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의 옛 문화재를 보존해서 문화·교육의 산실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교회에서도 교인들 대상으로 사회계몽운동인 면려회 활동을 하였다. 야학을 운영하였고 강연회와 토론회, 웅변대회, 연극공연, 금주·금연운동, 물산장려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김태희는 민중들을 계몽시켜 독립운동에 앞장서게 한 계몽운동가였다.

셋째, 그는 국내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였다. 그는 1909년 대동청년단의 단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19년 3·1만세운동 때는 청주 읍내 만세운동과 산상 횃불만세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국내와 연결하는 연통제가 조직되자, 그는 충청북도 독판부 참사가 되어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자금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1919년 6월 2일 국내에서 조직된 大韓國民會의 충북도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평양에서 열린 大韓國民總會에 참가하였으며, 평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그는 1927년에 신간회가 조직되자 신간지회를 이끌면서 지역의 현안 문제인 청주교보 문제에서 일본 교장의 부적절한 언사와 한국 학생에 대한 불법적인 처분, 한국인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였다. 또한 만주동포 옹호 문제, 원산총파업 지지성원 등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활동한 독립운동가였다.

그런 김태희가 교육가로서, 계몽운동가로서,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한 민족운동의 의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 교육에 앞장섰다. 그는 사립학교인 청남학교를 설립하여 근대교육을 하였고, 당시 여학생 교육의 불모지에서 밀려선교사의 부인 도티여사를 도와 청신여학교 설립·인가에 도움을 주었고, 여학생들도 교육하였다. 그 외에도 그는 야학을 개설하여 남녀노소, 부녀자들까지도 반을 개설하여 신학문을 교육하면서 근대교육에 앞장섰다.

둘째, 청주의 근대화에 앞장섰다. 그는 청주청년회 활동과 면려회 활동 등을 하면서 민중들을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며, 민중들의 지성 계발과 품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게다가 그는 민중들에게 야구·축구·연극공연 등 신문화를 접하게 하였으며, 금주·금연운동, 물산장려운동 등을 전개하여 풍속개량과 산업진흥 등 근대화에 앞장섰다.

셋째, 항일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대동청년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며 하였으며, 3.1운동에도 참여하였다. 이 후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연통제가 조직되자, 그는 충청북도 독판부 참사로 활동하며 독립자금도 보낸 것으로 보이고, 大韓國民總會에 평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그리고 신간회가 결성되자, 그는 청주지회 지회장으로 신간회 청주지부를 이끌어가면서 지역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재만동포옹호문제, 원산총파업 지지 성원 등 우리 동포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려 노력하면서 항일운동에도 앞장섰다.

넷째,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냈다. 일제는 김태희의 민족운동에 탄압을 가하기 시작하여 그를 무자격교원 도태라는 명분으로 청남학교를 떠나게 하였다. 게다가 김태희가 망선루 보전운동을 전개하자, 일제는 그를 ‘망선루 기부금’을 횡령했다고 조작해 그의 사회적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 그 결과 그는 『동아일보』, 청주지국 운영권도 내놓게 되었고, 청년회 활동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신간회가 조직되자 청주지회를 이끌어 갔다. 그가 신간회 청주지회에서 강연을 하였을 때 일제는 치안법 방해로 그를 검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회장으로, 집행위원장으로 신간회를 이끌어 갔다. 아쉽게도 1931년에 신간회는 해소되어 그의 활동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 후 김태희는 교회활동에 전념하였지만, 일제는 교회활동에도 압력을 가하였다. 그는 신실한 신앙보다 민족운동이 우선이었기에 교회내에서도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자 일제가 정교 분리정책이란 명분 아래 교회 내에서 종교적인 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심지어는 신사참배까지 강요하자, 김태희는 이 신앙마저 내려놓고, 신탄진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는 신탄진에 가서도 야학을 운영하면서, 그의 민족주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냈다.

그런데, 김태희의 민족운동에도 한계점은 있다. 교회와 연계한 민족운동을 펼치다 보니 국내 활동에 국한되었고, 다양한 투쟁을 펼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또한 특정한 세력과 사상에 치우친 나머지 광범한 사회계층과의 연대가 이뤄지지 못한 점도 한계였다. 그러나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김태희는 한말부터 1920년대까지 청주의 근대를 이끌며, 특히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을 주도한 선각적 인물로 평가하여 마땅하다.

[투고일: 2020.10.15, 심사개시일: 2020.10.24, 게재확정일: 2020.11.30.]

【參考文獻】

- 김승태 엮음, 1991, 『한국 기독교와 신사참배 문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김형목, 2009, 『교육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김형목, 2016, 『대한제국기 충청지역 근대교육운동』, 도서출판 선인.
- 大雄春峰, 1923, 『淸州沿革誌』, 우주출판사.
- 박걸순, 2012, 『충북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 박철하, 2009, 『청년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覆面儒生, 1921, 『朝鮮獨立騷擾史論』.
- 신용하, 2007, 『신간회의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이균영, 1993, 『신간회 연구』, 역사와 비평.
- 장규식, 2009, 『1920년대 학생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在上海日本總領事館, 1932, 『朝鮮民族運動年鑑』.
- 全淳東·崔東峻, 1999, 『淸州YMCA 五十年史(1948~1998)』, 대청정판사.
- 淸南初等學校 總同門會 開校 100周年 紀念事業會, 2004, 『淸南百年史』, 일광.
- 충북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사업회, 2002, 『忠北基督教100年史』, 동해출판사.
- 최기영, 2009, 『애국계몽운동Ⅱ- 문화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85, 『THE KOREA MISSIONS YEAR BOOK』.
- 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86, 『THE KOREA MISSION FIELD』 1~27권.
- 해리 로즈 지음, 최재건 옮김, 2009,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 Harry A Reodes. A.M.D.D. 2009,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volume.1.(1884~1934).
- 강대민, 1997, 「백산 안희제의 대동청년단운동」, 『경성대학교 논문집』 18-2.

- 강동진, 1971, 「원산총과업에 대한 고찰-주로 그 민족독립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중심으로」, 『학술지』 12, 건대 학술연구소원.
- 김권정, 2006, 「1920년대 전반 기독교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연구』 2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김덕, 2003, 「1920~1930년대 기독교청년면려회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18, 한국기독교연구소.
- 김형목, 1999, 「1906~1910년 서울지역 야학운동의 전개양상과 실태」, 『향토서울』 59.
- 김형목, 2016, 「대한제국기 청주지역 근대교육과 지역운동사상 의의」, 『중원문화 연구』 24, 중원문화연구소.
- 김형목, 2018, 「3·1운동 직후 야학운동의 전개양상과 역사적 성격」, 『역사와 담론』 86, 호서사학회.
- 박결순, 2005, 「일제하 충북지방의 독립운동과 그 유산」, 『충북학』 7.
- 박결순, 2010, 「충북지역 3.1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 『중원문화연구』 15,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박결순, 2013, 「3·1봉화만세운동과 趙東植」, 『중원문화연구』 20, 중원문화연구소.
- 박진동, 1998, 「일제강점하 조선인의 보통교육요구와 학교설립」, 『역사교육』 68, 역사교육연구회.
- 신용하, 1993, 「한국 국내 민족독립운동의 특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안재홍, 1928, 「실제운동이 당면과제-신간회는 무엇을 할까?」, 지식산업사.
- 윤덕영, 2011, 「신간회 초기 민족주의 세력의 정세인식과 민족적 총역향 집중론의 제기」, 『한국근현대사 연구』 56, 한국근현대사학회.
- 이동언, 1994, 「백산 안희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이명화, 1991, 「민립대학 설립운동의 배경과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이치만, 2010, 「신간회운동과 기독교계의 대응-기독교계 민족운동진영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39.
- 장석홍, 1999, 「3.1운동과 국제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장승순, 2014, 「1920년대 충북지역 민족운동의 양상과 성격」,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승순, 2015, 「1920년대 충북지역 청년회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 『중원문화연구』 23, 중원문화연구소.
- 全淳東, 2000, 「望仙樓 上梁文에 대한 一考」, 『중원문화연구』 4-1,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전순동, 2004, 「일제강점기의 청주청년회의 성립과 그 배경」, 『인문학지』 28,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전순동, 2004, 「일제강점기 청주청년회의 활동과 그 의의」, 『인문학지』 29,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全淳東·崔東峻, 1999, 「日帝期 淸州地方의 民族教育運動-淸南學校를 중심으로」, 『중원문연구』 2·3, 중원문화연구소.
- 한시준, 2000,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내 정보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15, 한국근현대사학회.

【Abstract】

Kim Tae-Hee and National Movement

Song, Seon-hee

Kim Tae-Hee was born in 1877 in Tap-dong, Cheongjumok as the only son between his father Kim Dong-hyun and his mother from Jeonju Lee family. His name is InWhan. Tae-Hee is called after he an adult. His penname is Ilseok.

His national movement began with the establishment of Cheongnam School in 1903. He also taught female students at Cheongshin Girls' School, and in 1909 he did his activities as a member of the United Young Men's Party. In the same year, he served 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Youth Association in Cheongju-eup Church and supported the national education movement of Cheongnam School.

He participated in the March 1st Movement in 1919, and when the secret contact network of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organized, he was in a position of independence movement group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and also sending war funds. Also, whe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as organized, he was elected as a councilor of representatives of Chungcheongbuk-do and doing the activities. In 1920, he did activities in the Cheongju Young Men's Association, and during the same period, he organized the Christian Endeavor Society at church and continued social enlightenment movement.

When Singanhoe (New Trunk Association) was organized, he

took the lead of the activities of Cheongju Branch of Singanhoe and presiding anti-Japanese movement. In 1931, Singanhoe was dissolved, and when his church accepted to do shrine worship, he left Cheongju and moved to Sintanjin. At his age of 60 in 1936, he departed from the world without seeing his country's independence.

Kim Tae-Hee was an educator who provided 'National Education' to students, and was an enlightenment activist through the enlightenment of students & citizens, an independence activist who tried to obtain independence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significance of Kim Tae-Hee's National Movements are as follows: First, he led the efforts to provide modern education to the students. Second, he was a leader in the modernization of Cheongju. Third, he was at the forefront of the anti-Japanese Movement. Fourth, he had successfully kept his values and beliefs until the end.

There were also some limitations to such 'National Movements.' Since most activities took place in connection with the church, it was limited to domestic activities and failed to expand its influence to various fields. Also, because the movement was biased towards certain groups and ideologies, it failed to create a meaningful connection with the mass public.

However, despite these kinds of limitations, Kim Tae-Hee deserves to be regarded as a visionary pioneer who led the modernization of Cheongju from the late 19C to the 1920s, and as a figure who stood at the forefront of the National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Keywords : Kim Tae-Hee(김태희), The national movement(민족운동), ChengNam elementary school(청남학교) United Young Men's

Party(대동청년단), Cheongju Young Men's Association(청주청년회),
Christian Endeavor Society(먼려회), Singanhoe(New Trunk
Association, 신간회).